위대한 전승 69돐 기념
행사 성대히 진행
혁명전통계승의 빛나는
장을 펼치시여
로설계가의 자서전
금수강산
8
주체111(2022)
루계 제396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2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1(2022)년 8월호

제396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진격의 나팔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길이 전하는 삼지연대기념비에 세워진 《진군》편.
진격의 나팔소리를 울리며 원쑤격멸에로 용감히 돌진해나가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해주고있다.

편집: 최은혁, 서철남, 최경희 ㄱ-2280135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사회주의승리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여온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무한한 자긍심을 안고 위대한 전승 69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백승의 만년초석으로 고여진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전화의 영웅세대가 혁명유산으로 물려준 투쟁정신과 승리전통을 혈맥으로 이어가며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계승완성할 인민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수도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파멸을 선고한 영웅조선의 존엄높은 모습이 불멸의 승리상으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승리전통교양의 대전당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전승절을 영광과 계승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하게 되는 전체 참가자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기념행사의 례식이 진행되였다.

전투적기백으로 충만된 혁명군가에 맞추어 펼쳐지는 국방성중앙군악단의 각이한 대형변화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의 능란하고 재치있는 무기기교가 전승절의 열광을 더해주었다.

이어 항공륙전병의 강하기교와 전투비행대들의 기교비행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불세출의 령장을 높이 모신 력

사의 행운속에 조국해방전쟁의 1 129일을 동서고금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위훈으로 빛내이며 세기적인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우리의 자랑찬 국호와 국기를 세계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떠올려놓았음을 경쾌한 선률과 박력있는 률동, 세련된 강하 및 비행기교로 펼친 례식은 기념행사의 서막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대미문의 격난속에서도 세기의 정상에 주체조선을 강용히 떠올리시고 민족만대에 불멸할 위대한 승리사를 수놓아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와 리설주녀사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전승절을 맞는 전국의 전쟁로병들과 전체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최영림동지, 태종수동지, 리명수동지, 안심동지, 김경옥동지, 김시학동지, 리길송동지를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이 기념행사에 초대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 혁명학원 학생들, 청년대학생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국방성 책임일군들, 군종사령관들,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참가하였다.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주악되는 속에 전승절의 밤하늘가에 성스러운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서서히 게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전승절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재부를 마련한 위대한 혁명세대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존경,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강렬히 맥동치고 선렬들의 고귀한 생명과 바꾼 가장 존엄높고 자주적인 강국, 인민의 나라를 세계만방에 영원토

록 빛내여갈 엄숙한 선언으로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전체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장쾌한 축포발사가 시작되였다.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축하의 꽃다발인양 무수한 불꽃들이 령롱한 빛을 뿌리고 오색찬연한 불보라가 불멸의 승리상과 영웅전사들의 군상들을 눈부시게 밝히였다.

위대한 전승절을 기념하는 특색있는 공연이 시작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승리의 년대들에 투쟁과 신념의 노래로 높이 울린 명곡들이 올랐다.

우리 혁명의 1세, 2세들이 불비속에서 소중히 그려본 부국강병을 위하여,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넘볼수 없는 사회주의조선의 절대적국위를 위하여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영원히 강하고 영원히 승리해갈 각오를 백배해준 공연은 로동당시대 전승찬가들인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우리의 7. 27》로 끝났다.

또다시 환희로운 축포들이 련이어 터져올라 명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전통과 투쟁기풍이 우리 인민과 새세대들을 백절불굴의 애국투사들로 키우는 훌륭한 자양분으로,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끝없이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전쟁로병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전승 69돐을 환희롭게 장식한 기념행사는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반제반미투쟁의 대승리, 7. 27의 기적이 새겨주는 필승불패의 진리를 혁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여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르는 주체의 부흥강국으로 더욱 긍지높이 떨쳐갈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1(2022)년 7월 27일

존경하는 조국해방전쟁참전자동지들!

혁명의 로선배들과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있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일군들, 인민군군인들과 청년대학생, 혁명학원 학생동무들!

친애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

동지들!

크나큰 자부와 소중한 추억을 안고 또다시 맞는 승리의 7.27입니다.

세기적인 기적이 탄생한 그날로부터 2만 5,203일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전승의 환희와 영광이 바로 어제런듯 해마다 그러했듯 오늘의 우리의 감격과 자부는 끝이 없습니다.

동지들!

우리 조국에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위대한 전승절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나라사정도 어려운데다 얼마전에는 보건위기까지 겪은 판국에 오늘처럼 모든분들께서 이렇게 귀체를 보존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이를데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지들!

지금 이 시각 온 나라는 조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인민군렬사들과 혁명렬사들의 빛나는 삶을 추억하고 그들의 위대한 넋과 정신의 영생을 기원하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습니다.

수많은 유명무명의 참전렬사들이 이제는 우리 곁에 없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로병동지들도 많

지만 그들모두는 자기들이 피로, 목숨으로 지켜낸 조국의 품에 안겨있으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영광의 밤을 맞이하고있습니다.

나는 전쟁로병동지들이 건강장수하여 앞으로도 이같이 긍지스러운 로병대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우리 인민에게 세세년년 위대한 전승을 경축하는 특전과 무상의 영광을 안겨준 1950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주고 오늘도 우리모두에게 정신적기둥으로 큰 힘이 되여주시는 온 나라 로병동지들과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쟁로병동지들의 가족들께와 로병동지들의 건강보전과 생활에 수고와 진정을 다 바치고있는 모든 고마운분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과 생사를 같이하며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지원군 로병동지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동지들!

7월 27일은 우리 국가의 뜻깊고 경사로운 명절들가운데서 승리를 기념하는 류달리 긍지스러운 명절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인민에게 있어서나 자기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쟁을 이긴것만큼 자랑스럽고 빛나는 영광과 영예는 없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령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이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민주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으로 대립된 두 극간의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였습니다.

미제가 저들의 군대만이 아닌 방대한 추종국가군대를 조선전쟁에 투입하였다는 그 사실자체가 조선전쟁의 치렬성과 국제적성격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창건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의 청소한 군대가 지구상의 제일 포악한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무리들을 상대로 싸운다는것은 너무도 중과부적이였습니다.

그러나 력사가 엄정히 기록한바와 같이 일거에 우리 령토를 병탄하고 자기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던 미제의 오만한 침략야망은 첫걸음부터 전대미문의 강력한 반격과 무서운 용감성에 부딪쳤으며 3년간의 고전끝에 결국은 정전협정의 조인으로써 여지없이 좌절되고야말았습니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와 그의 동맹국군사력은 심대한 패배를 당한것입니다.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하고 국가의 자주적발전환경을 지켜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실행을 저지시키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인류평화를 수호한 여기에 우리 민족사와 세계전쟁사에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의 거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구의 동방일각에서 반제투쟁의 가장 첨예한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낸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야말로 침략자에 대한 수호자의 승리, 불의와 반동에 대한 정의와 진보의 승리이며 아무리 강대하고 우세한 침략자도 결사항전에 궐

기한 군대와 인민을 당해낼수 없다는 철리를 실증한 인류사적인 승리입니다.

이 전설적인 기적을 탄생시킨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로병동지들이며 동지들이 지금도 잊지 못해하는 수많은 전우들입니다.

영용한 전화의 조국방위자들이 포연탄우속에 육박해간 무수한 섬멸의 길들을 거쳐 승리라는 값비싼 영광이 탄생하게 되였고 진격의 선봉에 추켜들었던 공화국기는 영웅조선의 아들딸들의 값비싼 선혈로 더욱 짙게 물들어 영웅성과 승리와 정의의 상징으로, 반제투쟁의 불멸의 기치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지금과 같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생사존망의 준엄한 전쟁위기를 주저없이 맞받아나갔던 로병세대의 불굴의 기개가 더욱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누구나 잘 알고있는것처럼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청년들이였지만 조국을 지키는 전장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이였습니다.

일터와 학원에서 너무도 순박했던 사람들이 용약 군대에 탄원하여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용감히 대적할수 있은것은 바로 자기 당, 자기 정권에 대한 믿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확고하고 새 나라의 주인, 새 생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렬했기때문입니다.

우리 로병세대는 고마운 자기 제도와 자기의 고향과 일터, 자기 부모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그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원쑤에 대한 증오로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저린 희생의 아픔을 억척스럽게 이겨냈으며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잔인하고 야수적인 침략자들에게 공포와 절망을 안기였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했던 인간들이 자기의것을 지켜 죽음도 불사하고 나설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준것이 우리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였습니다.

이렇듯 피흘려 조국의 존엄과 명예, 령토와 자주권을 지켜내고도 한생토록 변함없고 사심없이, 견실하고 대바르게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후손들에게 애국적삶의 본보기를 가르쳐준 여기에 우리 전쟁로병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참인간상, 고결한 풍모가 있습니다.

유명무명의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이 이룩한 불멸의 공훈을 떠나서는, 전승세대가 바쳐온 티없이 순결한 헌신적복무를 떠나서는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와 오늘날 더욱 강대해지는 위대한 우리 국가를 생각할수 없습니다.

참으로 전쟁로병동지들은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억척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추를 다진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며 백절불굴하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전형들입니다.

동지들이 한생 발휘해온 충실성과 용감성, 애국심은 오늘 수천만 인민들속에 그대로 높뛰고있으며 1950년대 준엄한 포화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그 특질을 자기의 유전성으로 가지였기에 우리 혁명은 세대를 이어서도 그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좌절도, 후퇴도 없이 자기 위업을 자기의 힘으로 굴함없이 개척해나가고 있는것입니다.

동지들!

우리에게 있어서 전승의 날은 단순히 지나간 영웅시대의 항전사를 기념하고 돌이켜보는 경축의 날로, 회억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날은 가장 간고처절했던 년대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력사의 체현자, 증견자들앞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이 그 위대한 전통의 계승이라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는가를 되새기며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고 열정과 투지를 돋움는 소중하고 의의있는 계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승세대가 70년전에 떠올린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현시대의 높이에 맞게 더욱 빛내이고 다음대에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중대한 력사적책임이 지워져있습니다.

전승세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전화의 영웅정신을 억척같이 재워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하게 다지는것은 공화국의 국익수호와 자주적발전의 근본담보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핵위협을 서슴없이 가해온 미국과 첨예하게 대치해온 우리 혁명의 지나온 력사적환경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국가의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 올려세울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는 간고한 투쟁을 통해 이 절요한 력사적과업을 실현시켰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전후 근 70년간에 걸치는 치렬한 반미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자위를 위한 전략적잠재력을 강력히 비축한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 못지 않는,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엄중한 위해를 끼친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적대행위를 그치지 않고있습니다.

미제는 《동맹》강화라는 미명하에 남조선당국을 추동질하여 자살적인 반공화국대결에로 떠미는 한편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추구하면서 근거없는 그 무슨 《위협설》을 집요하게 내돌리고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신빙성》있게 류포시켜놓은 다음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의 체질화된 정책실행수법입니다.

미제는 늘 그러했듯이 최근에도 국제적으로 반공화국여론을 꾸준히 확산시키면서 우리 국가를 지역의 정세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으로, 《위험국가》로 묘사하고있습니다.

우리 무력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을 《도발》로, 《위협》으로 오도하고있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뻐젓이 벌려놓고있는 이중적행태는 말그대로 강도적인것이며 이는 조미관계를 더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에로, 격돌상태로 몰아가고있습니다.

미제가 우리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여론을 조종하여 《악마화》해보려고 집념하고있는것은 세계평화의 교란자로서의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불법무도한 적대시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습니다.

미제의 오만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제와는 사상으로써, 무장으로써 끝까지 맞서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리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욕과신에 빠져 광기를 부리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에 앞장서는 남조선보수《정권》과 호전광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전승절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지금 이밤, 이 순간도 250여㎞의 전선 남쪽에서는 혐오스러운 대결광, 불량배들이 군사적광기에 열이 올라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각종 군사행동들을 벌려놓고있습니다.

올해에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력대 그 어느 보수《정권》도 릉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과 사대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새 《정권》은 우리 정권과 군대를 다시금 《주적》으로 규정해놓고 동족대결상황을 대비한다는 쓸데없는 겁에 질려 악청을 돋구고 온갖 몹쓸짓, 부적절한 행동들을 일

삼고있습니다.

이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꺼리낌없이 제창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리였습니다.

남조선은 이 시각도 우리에 비한 저들 군사력의 렬세를 조금이나마 만회해보려고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강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미국의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으며 여러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욱 더 빈번해진 남조선것들의 허세성발언들과 형형색색의 추태는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해대는 허세성발언들이 저들 국민들에게는 신뢰할만한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선진군사력으로 인식되고 위안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잔뜩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는 몰골로만 보입니다.

남조선것들이 그 무슨 《한국형3축체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핵심전력을 키운다고 고아대고 천방지축 날뛰고있지만 남조선은 결단코 우리에 비한 군사적렬세를 숙명적인것으로 감수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수 없을것입니다.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행동을 운운한다는것은 가당치도 않은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입니다.

남조선《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것이며 윤석열《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것입니다.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시작부터 도가 훨씬 넘었다는것과 위험을 자초하는짓을 숙고해야 한다는것을 더 늦기 전에 자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전과 집권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있습니다.

또한 남조선군부깡패들이 최근에 내뱉는 분수없는 망발들도 듣고있으며 미국과 함께 하는 주목할만한 모든 군사적행동들을 놓침없이 살피고있습니다.

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수만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강도적인 론리로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도마우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앞에 로출된 《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보다 숙고하고 입보다 머리를 더 굴려야 하며 때없이 우리를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것이 상책일것입니다.

동지들!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여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습니다.

로병동지들이 피흘러 지켜온 이 땅의 안전과 이 나라 제도와 주권은 더욱 억척같은 자위적방위력과 굳센 정신으로 철저히 담보되고있음을 확언합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더 강해지는 철저한 군사력과 투철한 반제반미, 대남대적정신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 우리의 자주권을 철통같이 지켜내겠습니다.

적들의 발악적인 군비확장책동과 위험한 군사적기도들을 더욱 철저히 제압분쇄해야 할 우리 혁명의 정세는 우리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를 필요로 제기하며 이 력사적과업의 책임적인 실현을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최근에 국가방위력의 발전전략에 관한 임무를 책정하고 정확한 집행에로 령도하고있습니다.

전쟁은 힘과 힘의 랭혹한 충돌이지만 승전은 언제나 사랑이 열렬하고 신념이 강한 편에 있으며 이것은 첨단군사기술이 총발동되는 오늘의 전장에서도 달리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강대성과 백승의 원천인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항상 주력하여 견결한 혁명정신과 무비의 용감성, 억센 투지로써 가공할 타격력을 발휘하는 세계제일의 강군으로 육성될것입니다.

전체 인민들은 전승세대처럼 일신상의 모든 고락을 조국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애국의 길에 충정을 다 바치는 정신으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앞에 과감히 나서야 하며 불요불굴하는 의지로 사회주의건설에 분투하여야 할것입니다.

반제계급투쟁이자 자기자신의 운명수호전, 조국사수전임을 순간도 잊지 않고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맡은 초소와 일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갈 때 우리의 창조와 건설은 가속화될것이며 적대세력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될것입니다.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을 훌륭히 이어받아 조국의 백년대계를 위대한 승리로 이어놓아야 할 계승자, 교대자들은 우리 새세대들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수백만 청년들을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이 물려준 정신적바통을 견결히 이어나가는 열혈의 혁명가, 애국투사로 준비시키는데 언제나 선차성을 부여할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전쟁마당에서 어떻게 용감해야 하고 자기의 국기를 어떻게 사수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로병세대들처럼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에 피끓는 심장을 내대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청춘의 열정과 대중적영웅주의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 자기 시대를 또 하나의 새로운 영웅시대로 빛내여야 합니다.

전국의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일군들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탁월한 전승령도업적과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는 힘있는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모되여도 영웅적인 투쟁정신으로 하여 세대와 세대가 한피줄로 굳건히 이어지고 진함을 모르는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루는 바로 여기에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필승불패합니다.

가장 준엄한 년대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고 미래를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공적은 무궁번영할 공화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우리는 영웅적인 전승세대의 넋과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힘차게, 더욱 강인하게 투쟁함으로써 동지들이 사수한 이 땅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바이지만 로병동지들이 앉아계시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류의하여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부디 귀하신 몸들을 보중하여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지들!

위대한 우리의 7. 27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　　*

항일의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의 만년초석

뿌리가 없는 나무를 생각할수 없듯이 혁명전통을 떠난 혁명의 승리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조선혁명이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오며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은것은 바로 혁명의 개척과 더불어 창조되고 준엄한 년대기들마다에서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온 백두의 혁명전통이 있었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창조하신 전통이다.

그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고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 이룩되였으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창조되였다.

돌이켜보면 1920년대 조선의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옳바른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이 없이 진행되였으며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쓰라린 실패와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대에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에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그가운데서도 중요한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업적과 경험이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15(1926)년 10월에 결성된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은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ㅌ.ㄷ》가 결성됨으로써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카륜회의[주체19(1930). 6. 30-7. 2.)에서 혁명을 하려면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당을 건설하고 혁명을 령도해야 한다는 자주적인 당창건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어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신 그이께서는 그 성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여 두만강연안의 북부조선일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당조직들을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주체19(1930)년 10월에는 직접 국내의 온성지구에 나가시여 국내당조직을 무어주시였다. 그리고 주체23(1934)년 5월 31일 통일적당지도기관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시였다. 하여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담보하는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되게 되였으며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당조직건설사업과 항일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국이 해방[주체34(1945). 8. 15.]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복잡한 정세를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전위부대인 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지방당조직들을 내오시고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하여 해방후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조선로동당이 창건될수 있었다.

당창건위업뿐만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무력건설과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고 건국위업을 실현하시였다.

이밖에도 항일혁명투쟁시기 그이께서는 대중단체건설과 통일전선운동,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조와 출판보도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도 귀중한 경험을 쌓으시였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공고한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었던 항일혁명투쟁시기 그이의 령도밑에 투사들은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무장투쟁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으며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냈다.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는 속에 전설속의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렇듯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가렬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시기, 천리마대고조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헤치며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울수 있은것은 그 근저에 백두의 혁명전통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혁명의 만년재보, 대백과전서이다.

력사와 전통은 계승되여야 빛나는 법이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할수 있다.

혁명전통계승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신분은 다름아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주체45(1956)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을 이끄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길에 오르시였다.

답사행군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로정을 따라 직접 행군도 해보면서 수령님의 령도따라 항일유격대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싸워서 오늘의 승리를 가져왔는가 하는것을 배우는데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로정을 개척하심으로써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조직적답사가 시작되고 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게 되였다.

일찍부터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려 온 나라를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사업을 보다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그이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백두산지구를 비롯하여 각지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이 꾸려졌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새로 느낀것도 많고 감흥을 받은것도 많다고, 거저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풍찬로숙하시면서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를 벌리시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시며 간고한 행군길을 걸어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시였겠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이룩하신 혁명업적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가 하는데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것은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이라고, 혁명전통교양을 줴버리면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흘려 이룩해놓은 고귀한 전취물을 다 말아먹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까지 무너지게 된다는 귀중한 교시를 하시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그이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도 집필하시여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자기의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러 차례 백두의 혁명전구를 찾으시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 주체의 혁명전통이 맥맥히 높뛰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조국인민은 백두의 혁명전통이 년대와 세기를 이어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하신 절세위인들을 혁명의 진두에 모시였기에 그처럼 심각하고 복잡다단하였던 년대기들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본사기자 연 옥

혁명전통계승의 빛나는 장을 펼치시여

끝없이 흐르는 세월속에 세대가 바뀌여지고 산천도 변하고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혁명정신이고 대를 이어가며 계승되여야 하는것이 바로 혁명전통이다.

지난 10년간 조선로동당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왔다.

백두의 혁명전통의 영원한 계승!

이 말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으신 또 하나의 업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주체106(2017)년 3월 27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한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 우리 혁명이 걸어온 발전로정이 뚜렷이 안겨오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발전행로도 환히 내다보인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은 국보중의 국보이며 그대로 혁명의 교과서이라는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혁명의 대가 바뀌여 새세대들이 혁명의 중진으로 등장하고있는 시기에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런 드팀없는 의지를 지니신 그이이시기에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주체102(2013)년 11월말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이라고 하시면서 이앞에 서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이듬해인 주체103(2014)년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서는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삼지연지구를 여러 차례 찾으시여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 실체험지, 대전당으로 꾸려지도록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조선혁명박물관개건공사도 발기하시고 그 형성안과 전시방안도 지도해주시며 박물관이 혁명전통교양의 대국보관으로 개건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은 참관자들 주체106(2017)년 촬영

그이께서는《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를 비롯한 구호문헌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실물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며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외에도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 항일의 전구들을 찾으시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로 훌륭히 꾸려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밖에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수많은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을 꾸리는데서 혁명사적물과 자료들을 더 많이 보충하며 혁명사적물들을 원상그대로 영구보존하는 등 혁명전통교양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뜻과 령도에 의해 조국에는 혁명전통계승의 빛나는 장이 펼쳐지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될수 있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103(2014)년 10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백두산정에 오르시였다.

이날 휘몰아치는 백두산바람을 백두의 칼바람이라고 뜻깊은 정식화를 하신 그이께서는 혁명가들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혁명적신념을 벼려주고 최후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런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자주 칼바람이 지동치는 백두산에 오르시였고 강설속의 군마행군도 단행하시였다.

주체104(2015)년의 신년사에서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그해 4월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또다시 오르시였다.

25m/s로 불어치는 눈보라강풍을 군인들과 함께 맞으시며 그이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백두산에 자주 오르시여 백두광야에 조선혁명의 첫 페지를 아로새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발자취와 빨찌산투사들의 체취를 느끼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결심을 더욱 굳히신 그이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은 뜻과 불같은 의지에 받들려 온 나라에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휘몰아쳐갔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소리가 시대의 진군가로 높이 울려퍼지고 계승자들의 답사대오가 백두산으로 끝없이 이어져갔다.

주체108(2019)년 12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군마행군소식은 온 나라에 답사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켰다.

전국당선전일군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백두산으로 향한데 이어 전국의 근로단체일군들, 사회안전군 지휘성원들,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에로의 답사길에 올랐다.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살려는것이 조국인민들모두에게 간직된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와 함께 각 도에 꾸려진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하고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려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쳤다.

답사열풍과 더불어 조국땅에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답사행군길에서 백배해진 혁명정신으로 인민은 시련속에서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나라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으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왔다.

이 나날 인민은 백두에서 뿌리내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후손만대의 번영이 있다는것을 뼈속깊이 체득하였다.

진정 인민의 가슴에 백두의 넋과 기상이 차넘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정신이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힘차게 떠밀어주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게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의 밝은 미래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조국인민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와 함께 각 도에 꾸려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을 광범히 진행하고있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조국에는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충신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눈속에 파묻혀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싸운 신념의 강자, 열혈충신들이였다. 항일혁명투사 최희숙도 바로 그러하다.

그는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의 만행에 의하여 두눈을 잃고도 나에게는 눈이 없지만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침으로써 조선의 혁명가의 신념과 절개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보여준 불굴의 투사였다.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신음하던 1909년에 태여난 최희숙은 나라잃은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생활체험을 하면서 일찌기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하여 연길현 룡암동에서 공청책임자로, 부녀회장으로 사업하였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주체21(1932)년 4월 25일]하신 그해에 벌써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녀성의 몸으로 간고한 유격대생활을 하기에는 힘에 부쳤지만 그는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며 언제나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그 나날 그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모함으로 《민생단》으로 몰리우기도 하였고 또 혁명의 길로 이끌어준 남편이 일제에게 체포되는 가슴아픔도 겪어야 하였지만 모든 고통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며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였다.

그의 심장속에 간직된 이런 신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

항일혁명투사 최희숙

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편입되여 생활하는 과정에 더욱 억세여졌다.

당시 그의 투철한 혁명신념과 무한한 충실성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주력부대의 재봉대책임자로 임명하시였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대원들이 다 쉬는 휴식의 한때조차 놓치지 않고 눈우에 앉아서 옷을 기웠고 종일 행군한 뒤끝에 숙영을 하게 되는 깊은 밤에도 우등불옆에 앉아서 재봉기를 돌렸다.

오직 보초들과 눈보라만이 잠들지 않는 밤, 보초들이 이제는 쉬라고 여러번 권하였지만 그는 얼어드는 두손을 불며 대원들의 버선과 장갑을 기웠다.

주체28(1939)년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준비하시면서 그에게 600벌의 군복을 한달내로 지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당시의 어려운 조건에서 600벌의 군복을 그 기간에 만든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는 밀영을 짓는 일로부터 천에 물감을 들이는 일, 재단 등의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앞장섰다.

손은 부르트고 몸도 지쳤지만 그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군복제작과업을 열흘이나 앞당겨 수행하였다.

그이께서는 그처럼 어려운 임무를 기한보다 앞당겨 훌륭히 수행한 그를 높이 치하하시면서 금반지와 시계를 표창으로 수여하시였다.

그이의 믿음과 사랑속에 그는 더욱 훌륭한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그때 그의 가슴속에서는 오직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앞에 끝없이 충실하겠다는 결심만이 끓어번지였다.

그러던 주체29(1940)년 8월에 진행된 소할바령회의이후 어느한 소부대에 속하여 군사정치활동을 벌리던 그는 주체30(1941)년 2월 어느날 중요한 정찰자료를 가지고 사령부로 찾아가던중 적들과 맞다들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를 발견한 적들은 피를 물고 달려들었다.

그 전투에서 다리에 심한 관통상을 입은 그는 그만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적들은 갖은 고문과 회유, 감언리설로 그에게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신념의 강자로 자라난 그의 절개를 꺾을수 없었다.

그는 교형리들에게 이렇게 웨쳤다고 한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수는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고 2천만인민이 있다. 너희들은 우리 혁명의 불길을 아무런 힘으로도 막지 못한다.》

악에 받친 적들은 달려들어 그의 두눈을 뽑아내였지만 그의 심장의 웨침을 멈춰세울수는 없었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2천만인민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그날이 보인다.》

불같이 터치는 그의 이러한 선언에 질겁한 적들은 공산주의자의 심장이 어떤것인가를 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의 심장까지 도려내였다.

오직 혁명을 위하여 높뛰던 그의 심장은 이렇게 마지막고동을 멈추었다.

녀투사의 생은 비록 짧았으나 후대들에게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 불굴의 신념을 낳게 하며 신념으로 하여 빛나는것이 바로 혁명가의 삶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항일혁명투사 최희숙의 이 불같은 웨침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메아리가 되여 조국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개선문

개선문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이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주체71(1982)년 4월 14일에 제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신 평양 모란봉기슭 **김일성**경기장의 앞도로축선상에 세워져있는 개선문은 높이가 60m이고 4층으로 된 석조건물이다.

개선문이 건립된 때로부터 지난 40년간 무려 178만 3 000여명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얼마나 크나큰것인가를, 이 땅의 모든 번영과 조국인민이 누리는 행복이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웅장한 건축형상과 명료한 조각형상으로 보여주는 개선문은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개선문에 새겨진 《1925》, 《1945》라는 글발에서도 20성상 평범한 사람들의 한생의 자욱을 모두 합쳐도 비기지 못할 거룩하고 값높은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할 혁명업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하기에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대표단 단장으로 개선문을 참관하였던 요. 막썸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항일혁명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위업을 성취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이 땅우에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였다. 그이의 한평생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빛나는 생애였다.

조선의 개선문과 같이 건축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독특한 건축물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였다.》

그만이 아닌 외국의 벗들도 력사의 기념비를 우러르며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시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자고 하시던 그이의 음성과 하늘땅을 진감하던 못잊을 그날의 환호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아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개선문을 찾은 수많은 해외동포들은 도탄에 빠졌던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였으며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 최수봉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이 비끼고 겨레의 불타는 애국의지가 슴배인 개선문이 민족사에 영원토록 빛을 뿌리도록 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것이다.》라고 토로하였다.

진정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개선문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위인칭송의 대기념비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　　*　　*

일제를 전률케 한 전투들

군대의 전략전술적우세는 전법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월한 전법을 적용하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또 하나의 담보가 있다.

지난 세기전반기 아시아의 《맹주》라고 자처하던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일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유격전법에 걸려 일제는 전투마다에서 무리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전투들은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방법으로 승리한 무송현성전투, 달려드는 적들을 독안에 든 쥐처럼 깊은 함정골에 몰아넣고 대승리를 거둔 홍두산전투, 유명한 망원전술로 싸우지 않고도 적들을 크게 이긴 소덕수전투를 비롯하여 꼽자면 끝이 없다.

아래에 전투들의 일부를 소개한다.

기묘한 유인매복전

항일무장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어느날 조선인민혁명군의 행처를 찾아 헤매던 일제는 홍두산밀영으로 기여들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정을 살피시며 대원들에게 홍두산의 남쪽릉선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이 이 일대의 지형을 잘 모르는 약점을 리용하여 달려드는 적들을 칼날같이 생긴 릉선에 몰아넣고 호되게 답새겨버릴 지략을 내놓으시였다.

그에 따라 몇명의 대원들이 적들을 아군의 매복진지앞으로 유인하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달려드는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다. 첫 타격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적들은 릉선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릉선이 너무도 가파로와 거기에 올라설념을 못하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군 하였다.

그때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맹렬한 집중사격으로 적들에게 명중탄을 퍼부었다. 이날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친 적들도 혁명군의 야간습격에 의하여 또다시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그후 일제는 《유격대의 유인매복전에 걸려들면 뼈다귀도 못찾는다.》고 하면서 공포속에 벌벌 떨었다.

부후물등판싸움

부후물등판에서의 싸움은 항일무장투쟁력사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1938년말-1939년초)시기에 있었던 전투이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위중대와 함께 부후물등판을 에돌아 대수림지대로 행군하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에게 련속타격을 가하는 한편 적들을 뒤에 달고 큰 원을 그리며 부후물등판을 도는 선회전술을 쓰시였다. 적들은 무턱대고 경위중대를 뒤따르기 시작하였다. 행군대오가 부후물등판을 두바퀴째 돌았을 때 어디선가 새로 나타난 적《토벌대》가 도중에 끼여들어 경위중대를 뒤따르게 되였다. 적정을 포착하신 그이께서는 곧 대원들에게 발구채만한 나무를 찍어메고 빨리 행군하도록 하시는 한편 뒤따르는 적들에게 집중사격을 들이대여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시였다.

어느덧 대오가 처음 부후물등판을 돌기 시작한 곳에 이르게 되였을 때 그이께서는 메고온 나무를 눈우에 드문드문 서있는 나무그루터기들우에 건너놓고 빠져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위중대가 감쪽같이 빠져나간것을 알리 없는 적들은 저희들끼리 꼬리를 물고 등판을 돌기 시작하였다. 사위가 어둠에 잠긴 때에야 앞선 《토벌대》를 따라잡은 적들은 저희들끼리 치렬한 싸움을 벌리였다.

날이 밝은 다음에야 제편끼리 싸움을 벌렸다는것을 알아차린 적들은 급기야 사격을 멈추었으나 때는 늦었다. 이 유격전법이 얼마나 신출귀몰하였던지 《토벌》에 동원되였던자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전법의 비결을 알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까지도 알수 없는것이 눈우에 력력히 있던 발자국들이 돌연히 없어진것이라든가, 강을 건너간것이 뻔한 사실인데 강건너 언덕에는 발자취하나 없는 그야말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속에 잦았는지 알수 없는 신출귀몰하는 전법이다. 그것은 일본군의 병서나 용병술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변화무쌍한 천재적전법이였다.》

본사기자

위민헌신의 나날에

밤중에 찾아오신 사연

찾아오는 손님들도 뜸해지던 지난 5월 15일 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하고있는 만년약국의 판매원들은 뜻밖의 광경에 자기 눈을 의심했다.

자나깨나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약국으로 들어서시는것이였다.

너무도 큰 충격에 약국의 종업원들은 그이께 인사도 변변히 드릴수 없었다. 며칠전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약국의 실태를 료해하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에도 깜짝 놀랐던 그들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일군이 유열자들의 가족이 많이 찾아오는 이런 곳에 와도 되는가 하는 생각에 저도모르게 마음이 섬찍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 지도하시는 회의에 참가한 그 일군의 모습을 TV에서 보게 되였을 때 그들은 자꾸만 가슴을 치미는 위구심에 온밤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약국에 찾아오시였으니 그들모두는 놀라움과 당황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를 뵈옵는것은 이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소원이고 더없는 기쁨이지만 그 소원을 꿈결이 이루게 된 순간 약국의 판매원들은 금시 가슴이 타들고 심장이 졸아드는것만 같은 초조함과 긴장감에 온몸이 삽시에 굳어졌다. 한생에 다시 없을 영광의 그 순간에 기쁨보다 근심과 걱정이 산같이 쌓일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들이였던지라 너무도 안타까와 눈물만을 흘렸다.

너무도 크나큰 격정에 가슴을 들먹이는 그들에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하나하나 세심히 물으시였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였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봉사체계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은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사소한것도 놓침이 없이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과 판매원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날밤 그이께서는 장생약국에도 들리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알아보시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의약품공급체계의 허점을 바로잡고 의약품수송과 관련한 강력한 실행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정녕 인민의 아픔과 피로움을 심장에 꽉 채우시고 낮이나 밤이나 잠못드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물고기 300g

주체103(2014)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2층의 유희실에 들어서시자 뛰놀고있던 원아들이 달려와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무릎을 굽히시고 품에 안긴 원아들의 두볼을 다독여주시며 친부모의 따뜻한 정을 부어주시던 그이께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까지 들어주시고나서 애육원의 한 일군에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얼마나 먹이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일군이 올리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올해 가을부터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의 원아들과 양로원보양생들에게 물고기를 300g씩 먹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식사칸을 돌아보시면서도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 먹이자고, 그들이 칼시움을 제대로 섭취하게 하자면 물고기를 많이 먹여야 한다고 다심히 이르시였다.

그러시고 물고기생산과 수송, 공급에 이르기까지 해당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마지막모습

(전호에서 계속)

어머니와 나사이에는 얼마동안 문안이야기가 오고갔다. 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머니의 안색이며 음성이며 몸가짐이며를 순간순간마다 살피면서 건강상태를 가늠해보려고 애썼다. 외형으로 보아서는 지난겨울과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는데 기력은 흠뻑 줄어들었다는것이 알리였다. 팽팽하던 가슴도 홀쭉해지고 목도 가늘어지고 귀밑머리에는 흰오리마저 눈에 뜨일만치 섞여있어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도 일찍 우리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겨운 흔적을 낼수 있을가 하는 서글픈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나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군대가 어데까지 들어왔는가, 유격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량세봉선생과는 어떻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근거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서없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어머니는 화제를 자꾸만 정치문제에로만 유도하였다. 집안살림이나 자신의 병세가 화제에 오르면 얼른 매듭을 지어버리고 다른 문제를 꺼내여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아들에게 병을 숨긴다는것은 어머니자신이 그만큼 중태에 빠져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나는 판단하였다. 어머니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륙감적인 판단은 나로 하여금 등골에 찬물이 흐르는것과 같은 전률을 느끼게 하였으며 남모르는 눈물을 삼키게 하였다.

다음날 나는 아침밥을 일찍 해먹고 철주동생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를 하려는것이였다. 집둘레를 돌아보니 땔나무도 한두단밖에 보이지 않았다. 집에 들린 기회에 나무라도 몇짐 해놓고가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욕심 같아서는 손을 댄김에 몇달분의 화목을 해놓고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산이 깊지 않다보니 강대도 칠것이 없어 부득불 쉬나무를 베지 않으면 안되였다.

《철주야, 이런것 말구 더 분한이 있는게 없겠니?》

내가 이렇게 묻자 동생은 무명잠뱅이를 추어올리며 대답하였다.

《아무거나 한짐 해가지고 내려가자요. 어머니가 알면 꾸중하시겠어요.》

겉보기에는 철부지같았는데 벌써 철이 다 들었다.

철주는 낫질을 하면서도 연송 초조하게 마을쪽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몰래 나무를 하러 왔는데 낌새를 채면 어쩌나 하는 눈치였다. 내가 집안일에 잔신경을 쓰면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을 그도 알고있었다.

나는 쉬나무가지를 휘여잡으며 손에서 불이 일게 낫질을 하였다.

우리는 해가 질무렵에야 지게에 나무단을 올려놓고 마을로 내려왔다. 갈밭이 내려다보이는 굽인돌이에 나서자 마당끝에 서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웠다.

나는 작시미를 짚고 산길을 내리면서도 줄곧 무거운 상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였다. 중환에 계시는 어머니를 두고 원정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질것 같았고 앞길이 막막해보이였다. 우리는 원정의 기한을 한두달로 정하였지만 그 한두달사이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부대의 행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것이였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전처럼 몇해 더 지하투쟁을 하면 어떨가, 그렇게 하면서 몇달에 한번씩 집에 들려 가정사도 의논하고 어머니를 위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것이 한뉘 고생속에서 살아오시였고 남달리 심리적고통도 많이 겪어오신 어머니를 위해 내가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는 때에 나마저 이 안도땅을 훌쩍 떠나고나면 허전하고 의지할데가 없어 병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견디여내시겠는가, 그렇다고 하여 나 일개인 가정문제때문에 유격대의 한해 활동방침으로 이미 설정해놓은 남만원정계획을 취소할수도 없지 않는가.

《아니, 이 산에서 땔나무가 없을가봐 걱정이돼서 그러느냐?》

사립문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문득 언짢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나는 대답대신 웃음을 짓고 땀을 씻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차츰 네가 이상해진다. 무송에 있을 때두 그렇지 않았구 저 너머 흥륭촌에 있을적에두 그런줄 몰랐는데 요새는 집걱정이 늘어났으니 말이다.》

어머니의 음성은 갈려있었다.

《오래간만에 풀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후련해지는구만요.》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못들은체 하고 천연스럽게 뜨락으로 걸어들어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간만에 네식구가 한상에 둘러앉았다. 접시우에는 버들치구이도 놓여있었다. 그 버들치구이가 별맛이였다. 어데서 생긴 찬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막내동생이 형이 오면 상우에 놓을 찔게가 없어 야단이라고 걱정하던 끝에 낚시질을 해서 처마밑에 꿰미채로 걸어 말린것이라고 하였다. 손가락만큼한것이 한접시였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 다 없애지 못하고 몇마리 남기였다.

막내동생이 잠든 다음 어머니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였던 상체를 일으켜세우고 심각한 어조로 나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보니 너는 이전보다 좀 달라졌다. 네가 쌀자루까지 지고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줄을 나는 몰랐다. 앓고있는 이 에미걱정때문이겠지.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는 하다만 그만한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니다. 부녀회를 늘이려고 무송에서랑 네 손목을 잡고 험한 령을 넘어다닐 때에 오늘 이런 위안이나 받자구 그랬겠느냐? 너에게는 더 큰일이 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갈길이나 빨리 가거라.》

어머니의 말마디들은 격정으로 떨리였다.

내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어머니는 입술을 사려문채 다음 말을 잇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인생관이 마디마다 집약되여 그것이 나의 온 심혼을 폭풍처럼 흔들어놓으며 폐부에 깊숙이 새겨지는 천금같은 순간이였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말씀을 이었다.

《나무를 한다는것도 그렇다. 네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 셈치고 집걱정은 아예 말아라. 네가 집을 떠나서 혁명사업을 잘하면 내 병이 다 나을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부대를 데리구 곧 떠나거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

나는 즉석에서 대답을 올리였다.

《어머니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래일은 소사하로 갔다가 부대를 데리구 남만으로, 량세봉선생한테로 곧 떠나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콱 쏟아져나와 벽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말았다.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구석쪽에 놓인 반짇고리를 끌어당겨 나의 군복저고리에 단추를 달기 시작하였다.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아버지의 장례식때에 체험했던 일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상복도 입지 않고 아버지의 묘소에도 가지 않았다. 우리 삼형제에게만 상복을 입혀서 장례에 내보냈다. 오동진, 장철호, 량세봉을 위시한 독립군들이 우리 삼촌과 함께 수십명 령구를 따라갔지만 어머니만은 묘지에 가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변모된 보통강반의 저녁

본사기자 송대혁

수 기

꿈만 갈습니다

지난 4월 저의 가족들은 수도 평양에 특색있게 일떠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인 경루동에 새 보금자리를 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달이 되였지만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것만 갈습니다.

집에 들어설 때마다 이 훌륭한 새집이 과연 우리 집이 옳긴 옳은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군 합니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있은 날, 이곳 건설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제가 받은 새집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확 트인 공동살림방이며 부부방, 자식방, 서재를 비롯하여 여러칸의 각이한 살림방들과 부엌, 위생실은 물론 고급가구들과 각종 가정용설비들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는 집은 말그대로 호화살림집이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무아경속에 잠긴 우리 부부는 새집의 구석구석에까지 깃든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너무도 고마워 눈물만 흘리였습니다.

예로부터 새집들이날이면 기와 한장이라도 얹어준 그 정을 못잊어 고마움의 인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친부모도 못주는 이런 집을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저택자리에 조형화와 예술화, 실용성과 편리성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다락식주택구를 일떠세우도록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이 한창 진행될 때에도 현장에 나오시여 평범한 근로자들이 쓰고 살 집에 사소한 허점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수록 총비서동지에 대한 고마움이 사무쳐올라 우리 식구는 온밤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특별한 영웅적 위훈을 세운적 없는 평범한 로동자입니다.

제가 한일이 있다면 중앙정보통신국 기계공으로 배치된 때로부터 30여년간 한 직종에서 일한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평범한 로동자인 저를 애국자들의 대오에 세워주었고 원래 살던 집보다 두배나 큰 새집을 돈 한푼 받지 않고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 가슴이 뜨거워만집니다.

지난해 출퇴근길에 멀리에서나마 하루가 다르게 우줄우줄 솟아오르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바라보면서도 제가 그 집에서 살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태양절을 며칠 앞둔 어느날 저는 너무나 뜻밖에도 경루동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게 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안해에게 그것을 보여주니 안해는 혹시 제가 잘못 받지 않았는가고 하면서 도무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와 안해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준공테프를 끊어주시고 입사한 여러 세대를 찾아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격정의 눈물속에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새집의 주인들에게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어가 아니라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손으로 억세게 떠받드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의 땀방울과 애국의 량심을 천만금보다 귀중히 여기며 근면한 노력으로 나라를 받들어가는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제일먼저 누리게 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한 의지이며 일관한 정책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경루동에 이사오기 며칠전에는 평천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로 일하고있는 형(전철호)도 새로 일떠선 송화거리의 새집에 보금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선속담에 복은 쌍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우리 형제에게 이런 복이 쌍으로, 경사에 경사가 겹쳤으니 이 기쁨을 과연 어디에 비기겠습니까.

우리 로동자형제가 받은 경루동과 송화거리의 새집.

한 어머니에게서 생을 받아안은 날이 다르고 일터와 사는 곳도 서로 다르지만 근로하는 인민의 애국의 열정과 성실한 노력을 가장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속에서 우리 형제는 이렇게 새 거리, 새집의 복받은 주인들로 다시 태여나게 되였습니다.

아름다운 구슬다락-경루동의 주인이 된 꿈만 같은 이 감격을 영원히 간직하고 저는 나라를 받드는 길에서 참된 애국공민이 되겠습니다.

중구역 경루동 21호동
2현관 진영호

가족과 함께

보람찬 청춘시절

- 체육성 국장 로력영웅 리항준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청년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어떤 삶이 보람있는 삶이고 어떤 생활이 행복한 생활인가 하는데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조국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청년들의 고귀한 삶이 비껴있지 않습니까.

리항준: 정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은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였습니다.

가렬처절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청년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움으로써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복구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웠으며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위훈의 전통이 계승되여 청년들은 사회주의의 운명을 판가름하던 준엄한 시기에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수호하였으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청춘의 삶을 빛내여가는것을 가장 참된 삶으로 생각하는 새세대 청년들은 조국이 부르는 거창한 대건설장들마다에서 자기의 피끓는 청춘을 바쳐가고있는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의 나날에 가슴뜨겁게 체험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북부에 위치한 량강도지구에 새로운 대규모수력발전소를 일떠세울것을 구상하시고 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서 통채로 맡아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당시 당의 뜻을 받들어 탄원열풍이 전국을 휩쓸었으며 각지의 청년들이 정든 고향과 일터를 떠나 발전소건설장으로 모여왔습니다. 비록 성격과 나이, 취미는 서로 다르지만 당의 믿음에 보답하고 청춘의 자서전을 위훈으로 새겨가려는 마음들은 하나와 같았습니다.

기자: -30℃를 오르내리는 백두의 엄혹한 추위도 청년들의 발전소건설을 멈춰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이 지닌 진취성과 난관극복정신을 말과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동지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하여 청춘시절을 빛내이지 않았습니까.

리항준: 그렇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만 보면 안된다고 나는 후대들에게 말하군 합니다.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는 당의 믿음이야말로 지구도 들어올릴 담력과 배짱, 슬기와 용맹이 솟구치게 하는 무궁무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건설된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주체104(2015)년 촬영

한 힘의 원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돌격대원들은 《시간이여 나를 따르라!》, 《당이 준 과업을 당이 정한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라는 구호를 마음속에 새기고 자연의 광풍과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들을 맞받아나갔습니다.

그때 건설장에는 《백두청춘대학》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돌격대생활을 하나의 대학과정안으로 여기고 당이 준 과업을 관철하는 길에서 자기의 피끓는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내겠다는 마음들이 담겨져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이 모여 발전소언제는 날을 따라 높아갔습니다.

그러던 주체104(2015)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당시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기본건설대상인 1호발전소 콩크리트언제공사를 다그치면서도 2호발전소 사석언제건설을 완전히 끝내고 2호발전소 물길굴건설도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당과 수령의 위업을 실천으로 받들려는 불타는 충성의 마음과 나라의 전기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열정을 지닌 청년돌격대원들이기에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처음 맡아해보지만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주체104(2015. 10. 10.]까지 1호, 2호발전소건설을 끝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사실 1호발전소건설을 여섯달동안에 끝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해야 할 작업량은 방대하였지만 우리는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타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모두의 가슴속에 암반처럼 자리잡았습니다.

그 나날 돌격대원들은 1호발전소 언제공사에서 새 기록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루타입량이 나날이 늘어나 1 500㎥수준을 넘어 2 000㎥를 돌파하는 최고실적이 기록되였습니다.

우리는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1호발전소 언제공사를 그해 청년절(8. 28.)을 맞으며 완공하였습니다.

준공식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쌓아올린 언제를 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이 쌓아올린 언제이기에 그 높이를 결코 측정단위로 잴수 없다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3호발전소건설을 다음해 청년절까지 완공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우리는 당이 준 과업을 우리 청년들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안고 공사에 진입하였습니다. 백두의 혹한속에 자신의 한몸을 내대며 우리는 겨울철에는 수력발전소건설을 할수 없다던 기존공법에 종지부를 찍고 청년절까지 완공하게 된 3호발전소건설을 4개월이나 앞당겨 끝내였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나라에서는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었고 우리를 당과 국가의 중요초소들에 내세워주었습니다. 나도 그 나날에 로력영웅으로 되였으며 지금은 체육성의 한 분야를 맡은 일군으로 성장하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우리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믿음과 사랑이 낳은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많은 청년들이 조국이 부르는 곳들에 자원진출하여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주요전구들과 외진마을, 섬마을들에서 청춘의 불같은 열정을 바쳐가려는 이들의 행동은 만사람을 감동시키고있습니다.

리항준: TV와 신문, 방송을 통하여 소개되고있지만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용약 탄원진출하고있습니다. 이들속에는 고급중학교졸업생들도 있고 대학졸업생들도 있으며 중앙기관에서 사업하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를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간직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돌진해나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의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바람이 없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청춘시절을 값있게 바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는 청년들의 정신세계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고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당은 이런 청년들을 높이 평가해주고있습니다.

당이 부르는 곳에 자신들의 설자리를 정하고 로력적위훈을 세워나가는 이런 청년들이 있기에 부강조국건설은 하루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기회에 나는 청년절을 맞는 청년들에게 조국의 미래는 동무들의것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싶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　*　*

오늘 조국의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로 계속 탄원하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으로

평양시교외의 경치좋고 교통이 유리한 곳에 보건산소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주체105(2016)년에 일떠선 공장은 지난 기간 평양시안의 병원들에 질좋은 의료용산소를 생산공급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지금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들어가 생산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누구나 새 기술의 창조자가 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는 성과들을 적지 않게 이룩하였다. 해당 단위의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산소생산과 충진, 공급을 비롯한 경영활동을 실시간으로 장악대책할수 있게 하고 설비들을 자동화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기술혁신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공장의 종업원들은 그 어떤 날씨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위생학적기준에 부합되는 산소순도를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안을 도입하였다. 뿐만아니라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산소생산공정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저압팽창기와 고압팽창기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그 어떤 경우에도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공장에서 생산된 질좋은 의료용산소는 평양시안의 치료예방기관들에 전진공급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홍광남

외진 산골마을에 이르기까지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도입된 때로부터 지난 10여년간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민들이 중앙병원들로부터 먼거리의료봉사를 받았으며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이 각지의 치료예방기관들에 널리 보급되였다.

평양의학대학병원 먼거리의료봉사실은 주체104(2015)년 10월부터 봉사를 시작하였다. 병원에서는 먼거리의료봉사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어놓은데 이어 병원에서는 의료봉사에 필요한 프로그람들을 개발하거나 해당 단위들에서 개발된 먼거리의료봉사지원체계들도 리용하였다. 결과 임의의 순간에,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먼거리협의를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황해북도 수안군 읍에서 수십리 떨어진 산골막바지인 위라리인민병원만 보아도 이곳 의료일군들이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구급환자들에 대한 협의진단과 치료대책은 물론 최신의료기술강의도 받고있다. 그 과정에 환자치료에 적시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고 치료예방사업이 훨씬 개선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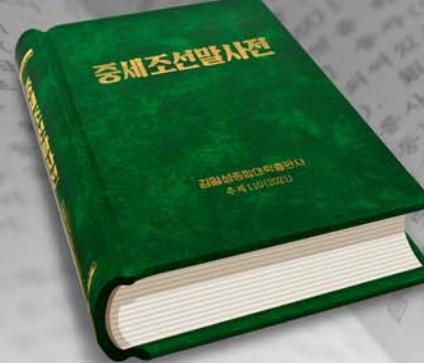
한 로인은 《산골의 리인민병원에도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도입되니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지난 5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국가적인 조치가 취해졌을 때 병원에서는 즉시 신속진단협의조를 뭇고 확진사업과 먼거리협의를 24시간 진행하는 사업체계로 이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평안북도 신도군에서 여러명의 중환자들이 발생하였을 때 그곳 의료일군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매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법들을 알려주어 소생시킨것 등 많은 사람들이 먼거리의료봉사를 받았다.

평양의학대학병원 먼거리의료봉사실에서는 주체110(2021)년 5월부터 주체111(2022)년 3월까지 먼거리협의건수는 4 990여건, 신속협의건수는 10여건, 먼거리강의는 70여건을 진행하였다.

이곳에서 진행하고있는 먼거리강의도 각 도, 시, 군, 리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있다.

평양의학대학병원 콩팥내과 의사 김송희를 비롯한 유능한 의사들과 관록있는 대학교원들의 강의는 지방의 의료일군들과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된 교원, 연구사, 학생들속에서 《기다리는 강의》로 되고있다.

평양의학대학병원 외과부원장 류대모는 《수도와 멀리 떨어진 섬마을과 외진 산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감사편지들을 보내오고있다.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민의 보건일군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간직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의료봉사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리 철

독특한 맛과 향기로 이름높은

강계포도술

산간지대의 청신하면서도 따스한 해빛아래서 무르익은 포도로 발효숙성시킨 강계포도술은 독특한 맛과 향기, 인체에 좋은 약효능으로 하여 강계특산품으로 소문이 났다.

50년만에 완성한 《중세조선말사전》

최근 력사학자들과 언어학자들속에서 호평받는 사전이 있다.

15세기 고유한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로부터 19세기까지의 우리 말을 모두 수집하여 현대말로 주해를 달아준 《중세조선말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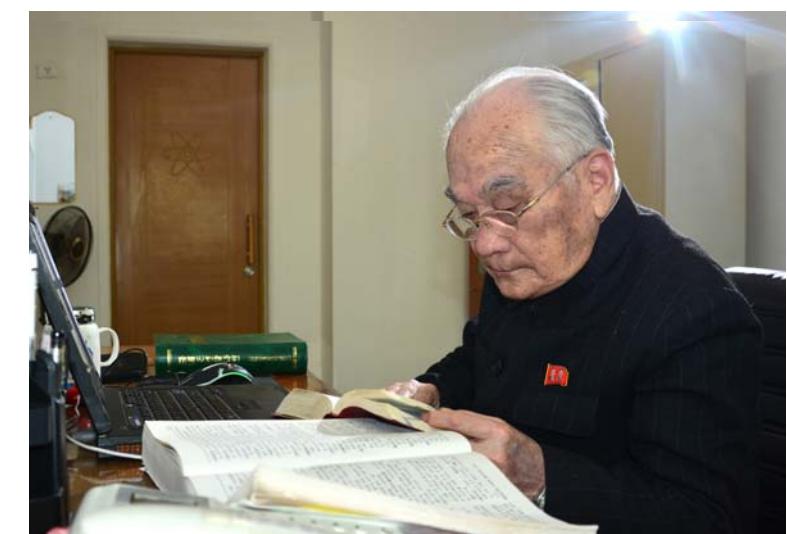
1 063페지로 되여있는 사전에는 수만개의 어휘들이 올라있다.

력사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이 어휘들은 조국의 중세시기 문학작품연구에 큰 디딤돌로 된다고 평하고있다.

중세시기의 우리 말의 력사를 더듬어볼수 있는 이 사전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교원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김영황(92살)선생이 주체60(1971)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50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완성한것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의용군으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싸웠으며 전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를 졸업한 그는 주체49(1960)년부터 같은 학부에서 오늘까지 교편을 잡고 민족어발전에 한생을 바쳐오고있다.

조국에서 중세어휘를 현대말로 정립한것은 김영황원사가 처음이다.

더우기 90살이 넘도록 혼자서 연구집필하여 완성한 그의 탐구정신과 정열, 민족어력사연구에 바쳐온 애국심에 모두가 감탄하고있다.

그렇다고 그는 수십년간에 이 사전 하나에만 머무른것이 아니였다.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를 집필한데 이어 《조선언어학사연구》, 《고구려의 언어유산》을 비롯하여 50여건의 도서들을 내놓으면서도 그는 사전집필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중국 베이징대학, 로씨야 원동국립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에 나가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도 이 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였다.

락수가 돌을 뚫듯 그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주체110(2021)년 《중세조선말사전》은 그 빛을 보게 되였다.

그는 《민족어를 연구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평양문화어에 매혹된 나이다. 이 문화어의 뿌리와 줄기를 하나하나 발굴해내고 연구를 심화시킬수록 슬기로운 조선민족임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 나는 지금 인생의 황혼기이지만 나라의 문화적재부를 하나라도 더 남기고싶어 또다시 새로운 과제를 내스스로가 맡아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엄향심

새 도서를 집필하고있는 김영황

우표에 비낀 얼굴들

조국에서는 주요기념일때마다 우표전시회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많은 우표수집가들이 참가하고있는데 지난 4월과 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경축 우표전시회들에는 신인우표수집가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강명석

《우표는 나라의 재보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은 조선우표애호가동맹 회원이다.

황해남도 과일군이 고향인 그는 대학시절 어머니가 보내주는 편지를 늘 받군 하였다.

편지를 읽어가느라면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어려와 눈굽을 적시던 그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내주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건사하기 시작하였다. 날과 달의 흐름과 더불어 편지가 어지간히 쌓이게 되자 우표들만을 뜯어내여 보관하였다. 이렇게 모아놓은 우표가 하나의 책만큼 되자 그는 우표수집에 대한 남다른 취미를 가지게 되였다.

그 나날 조선우표박물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시절에 수집하시였던 우표들도 보며 그에 더욱 매력을 느끼였다.

그는 수집한 우표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였으며 그 과정에 조국의 우표발전력사를 알게 되고 미술분야에도 상당한 조예를 가지게 되였다.

우표수집을 통하여 그는 인류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체득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넓혀나갔다.

우표의 세계는 력사학을 전공하는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우표수집을 하며 알게 된 상식들을 교수에 구현하여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생동한 표상을 가지게 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진아는 《조선미술사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훈민정음에 대한 우표를 보여주었는데 감흥이 컸다. 그때 우표에는 훈민정음과 함께 그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이 그려져있었다. 하나의 세부였지만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강명석은 이렇게 말하였다.

《통신수단으로 리용되던 우표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다. 작은 우표에는 나라의 시대상이 비낀다. 우표는 증권이면서도 나라의 재보이고 얼굴이다.》

정경령

《우표는 <보석>과 같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고급반 학생인 정경령은 15살이다.

경령은 지금 대학에서 기대되는 바이올린연주가로 주목되고 있다.

《나의 생활에 박력과 률동을 더해주는 또 하나의 취미가 있다. 그것은 우표라고 하는 <종이보석>이다.》라고 경령은 말하였다.

그가 우표에 호기심을 가진것은 소학교시절부터였다. 정열적인 우표수집가인 그의 어머니 리예림은 딸의 손에 종종 우표들을 쥐여주군 하였다.

고양이와 새 등이 그려진 우표를 경령은 손으로 만져도 보고 유심히 보기도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대하였다.

다양한 그림의 우표들은 어린 소녀에게 있어 놀라운 세계였다.

차츰 날과 달이 감에 따라 경령은 우표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였다.

이때부터 바이올린과 함께 우표수집이라는 취미가 경령의 생활에 자리잡았다.

하나하나의 우표를 수집할수록 진귀한 보석을 발견한듯 마음은 마냥 즐거워졌다. 우표들은 그의 생활을 아름답게 가꾸어주었다.

언제인가 경령은 음악가 박연의 초상이 그려진 우표를 얻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박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었다. 그는 부모들과 선생님, 책들을 통해 박연이 중세기 조국의 3대 음악거장의 한사람이라는것과 함께 우리 민족의 음악발전력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

그는 우표수집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상식과 지식을 쌓고있다.

《우표는 결코 작지 않다》

《우표는 결코 작지 않다.》

10여년전부터 우표수집을 해오고있는 인민경제대학 학생 리혁일의 말이다.

언젠가 사업상관계로 다른 나라에 출장갔던 그는 조국에서 보낸 우편엽서를 받게 되였다.

언어도 민족도 다른 나라에서 조국인민들의 랑만적인 생활을 반영한 우편엽서를 받았을 때 그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그것을 보느라니 조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있는 혈육들과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못잊을 학창시절의 일화들도 생생히 추억되였다. 그날 그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못이루었다.

《우표가 그렇게 큰줄 그때에야 알았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후 그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우표수집에 몸을 잠그었다. 소인우표, 비소인우표들을 찾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십년간 우표수집을 해오고있는 한일중로인을 만나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였다.

그 나날 우표첩에는 각이한 년대의 우표들이 자리잡게 되였고 우표첩은 여러권이나 되게 되였다.

하루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우표첩을 펼쳐보는것이 그의 류다른 문화정서생활이다.

그의 안해인 최현심도 우표수집가이다.

조선우표애호가동맹 회원들인 그들부부는 수집한 우표들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그들부부는 귀여운 딸 리서진도 앞으로 우표수집가로 키울 의향을 표시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 철

가족과 함께 있는 리혁일(왼쪽)

로설계가의 자서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추억에 산다는 말이 있다.

80살의 고령에 이른 국가설계총국 참사 로력영웅 공훈설계가 고부웅도 지나온 나날을 추억하군 한다. 그럴 때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뚜렷이 안겨오며 절로 가슴뿌듯해지군 한다.

특히 매일 아침출근길에서 만수대예술극장을 볼 때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기군 한다.

국가설계총국 참사 고부웅

만수대예술극장설계야말로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올수 있게 한 계기로 되였기때문이다.

일본에서 살다가 주체49(1960)년 조국의 품에 안긴 그는 희망대로 평양건축대학을 졸업하였다. 평양도시설계연구소의 설계가로 된 그는 처음부터 여러건의 설계들을 손색없이 맡아하여 전문가들속에서 촉망되는 설계가로 지목되였다.

그후 그는 만수대예술극장설계를 맡게 되였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설계의 주설계가들중의 한명이 되였다는 자부를 안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설계에 달라붙었다. 앞서 건설된 극장들보다 보다 현대감이 나면서도 현란하게 하기 위해 자기가 맡은 부분설계의 선 하나, 점 하나 무심히 그리지 않았다. 며칠동안 밤잠도 잊고 고심하여 완성했건만 그의 설계는 오랜 설계가들과 심의원들에게서 혹평을 받았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지 못한 겉만 번지르르한 설계라는것이였다.

그날 그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시대를 반영하고 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하였을 때 새것으로 된다는것을 그때처럼 아프게 체험해보지 못했던것이다. 그는 주저앉지 않고 설계를 다시 시작하였다. 민족적전통이 살아넘치게 극장의 지붕처리부터 시작하여 요소요소에 이르기까지 민족적인것과 현대감이 살아나게 심혈을 기울이였다.

여러 나라들에 나가 그곳의 기술자들과 대상건설계획을 토론하는 고부웅

오랜 설계가들도 그를 적극 도와나섰다.

마침내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만수대예술극장의 설계가 완성됨으로써 극장은 훌륭히 건설되였다.

여러 차례 극장설계형성안을 보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완공된 만수대예술극장을 돌아보시고 극장건설을 잘했다고 치하를 해주시였다.

그후 그는 평양교예극장, 빙상관, 인민대학습당, 향산호텔을 비롯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의 설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평양시건설대상과 중요대상설계를 보장하는데서 공로가 있는 동무라는 값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중국, 방글라데슈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기도 하였다.

오랜 기간 평양도시설계연구소 설계가로부터 기사장으로 일하면서 세운 공로로 그는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경치좋은 해방산동의 현대적인 살림집도 배려받았다. 그리고 국가적인 대회들에도 참가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육체적로화를 피할수 없지만 그는 오늘도 건축설계분야에서 당당한 권위자로 사업하고있다.

그는 늘 젊은 설계가들에게 《설계도면의 점하나, 선 하나에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먼저 담아야 한다. 우리 설계가들은 조국의 대지에 자기의 떳떳한 창조물로 자서전을 쓴다.》라고 말해주군 한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고부웅이 설계한 건축물들의 일부 주체108(2019)년 촬영

인민대학습당

평양교예극장

향산호텔

단나무로 소문난 고장

어제날 황해북도 연탄군은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고장이였다.

그것은 연탄땅에 크게 소문을 낼만한 자랑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여 이곳 사람들은 나들이로 다른 고장에 가면 뭇사람들이 제 고장 자랑을 할 때마다 입만 다시군 하였는데 이런 그들을 두고 《점잖은 연탄어른》, 《입이 무거운 사돈님》이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뒤에서 무어라 핀잔을 하여도 자랑을 하지 않고는 못견디겠다는것이 오늘의 연탄사람들의 심정이다.

옛날 돌이 많아 돌모루라고

불리웠다는 연탄읍은 해방전까지만 해도 화전민들이 살던 곳이였다. 땅이 척박하고 깊은 산골이여서 농사가 잘 안되였고 번듯한 집 한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연탄사람이 제구실을 하려면 황주긴등벌이 있는 이웃군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브라질에서 살고있는 허천 손동포도 그때 자그마한 보짐을 메고 고향과 하직하였었다. 그러했던 동포는 수십년이 지난 후에야 고향땅을 밟아보았고 송아지적동무들과 만나 옛시절을 추억하였다. 후에 동포는 아들 청송이를 데리고 고향땅을 다시 찾았다고 한다.

오늘 연탄군은 많이도 달라졌고 사람들 역시 고향땅을 원망하며 떠나갔던 그때의 연탄사람들이 아니였다. 제 손으로 고향을 꾸려갈 일념 안고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의 터전을 하나하나 가꾸어가는것이 오늘의 연탄사람들이다.

그들의 근면한 노력에 의해 군에는 황주천을 따라 다층살림집들과 문화회관, 병원, 학교 등이 일떠섰고 2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군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추동해가고있다.

이 고장주민들은 산을 가꾸고 강을 다스려 덕을 보고있다.

황주천을 막아 호수를 건설함으로써 군은 물론 황주군과 송림시의 논농사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황주천을 따라 계단식으로 10여개나 되는 중소형발전소를 일떠세워 큰물피해도 막고 전기도 생산하고있다. 최근에는 몇년은 잘 걸린다고 하던 방대한 두무동저수지건설을 4개월만에 끝내였다.

산들에는 이깔나무며 잣나무, 단나무와 오미자 등을 많이 심고 가꾸어 전국에 소문을 내고있다. 특히 약용식물인 단나무는 연탄의 특산으로, 자랑으로 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배우려 이 고장을 찾고있다.

10여년전부터 단나무를 군의 기후풍토에 적응시킨 연탄군에서는 이 나무를 모든 리들은 물론 가정과 일터, 학교와 병원 등 그 어디에서나 재배하여 큰 실리를 얻고있다.

지난해 군에서 거두어들인 단나무열매만도 수십t이나 되는데 올해에는 그 수확량이 훨씬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군에서는 단나무열매를 가공하여 단나무열매정액, 단나무열매차, 단나무열매단묵 등 여러가지 단나무열매가공품들을 생산하고있으며 단나무열매발효식초, 단나무열매사탕을 비롯한 새 제품들을 개발생산하고있다.

단나무재배와 단나무열매가공품으로 하여 오늘 연탄은 더 유명해졌다.

어제날에는 황주군과 송림시에 손을 내밀지 않고서는 살수 없다던 고장이 오늘은 모든것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지방예산제모범군, 모범지방공업군 등의 칭호를 쟁취한 군은 성과에 자만을 모르고 더 행복한 래일을 향해 달려가고있다.

이 고장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향토애로 들끓는 연탄, 약동하는 연탄의 숨결을 느끼게 되였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홍광남

상식

단나무열매의 약효

단나무는 열매의 약효로 하여 사람들속에 잘 알려져있다.

단나무열매에는 항로화작용, 강심작용, 항염증작용을 하는 생리적활성물질과 여러가지 비타민, 당분과 유기산 등이 들어있다.

단나무열매로 만든 약품과 음료는 혈압을 떨구고 산소리용률을 높이며 혈당과 혈청지질을 낮추어주는것과 함께 항산화와 간보호에서 특효가 있다.

단나무열매에는 이처럼 생리적활성물질들이 풍부히 포함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천연건강식품으로 인정되고있으며 그 리용범위는 날로 늘어나고있다.

*　　*　　*

애국렬사 허헌

주체19(1930)년 6월 조선민간신문인 《동아일보》에는 하나의 기사가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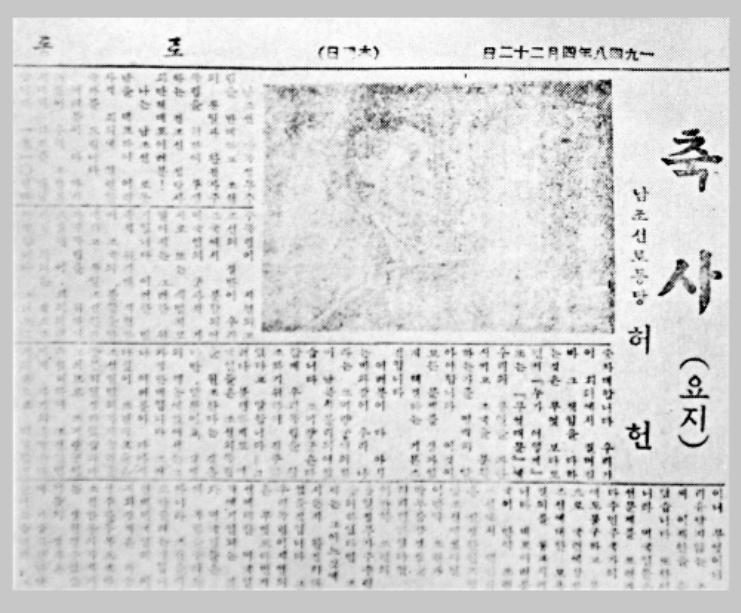
글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한 김책(항일혁명투사, 해방후 당 및 국가활동가)과 그를 변호한 허헌, 기자와의 3인좌담회에 대한 소식이였다.

어떻게 되여 김책을 무료로 변호해주고 출옥후 집에 데려다 보양시키고 로자까지 마련해주게 되였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허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이 조선사람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고도 벌을 받는것이 가슴아프고 억울하여 무료변호를 맡아했지요. 동정심, 련대감, 선배로서의 의리… 이런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지, 하여튼 우리는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몫 할수 있는 혁명가들을 아껴야 한다고 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허헌선생이 김책의 변호를 해준것은 순수한 애국심의 표현이였다고 하시면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회고하시였다.

함경북도 명천군에서 출생한 허헌(1885. 7. 6-1951. 8. 17.)은 교육자이고 법률가이며 정치활동가였다.

그는 한성중학교,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에 가서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법학을 배웠다.

1911년 3월 대학졸업후 그는 중학교 교원, 변호사, 보성전문학교 교장직을 맡아 애국적이고 량심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그는 조선국민회사건관련자들을 비롯하여 3. 1인민봉기관련자, 조선공산당사건관계자들을 취급하는 특대형사건들에 나서서 조선민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견결하면서도 량심적인 변호를 하였으며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변호사회의에 참가하여 일제의 강도적침략과 만행을 세계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주체16(1927)년 《신간회》(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합작으로 출현한 통일전선조직)조직사업에 참여하여 그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하였으며 조선의 혁명가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반일애국력량을 단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체26(1937)년 6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은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

민족과 운명

일무장투쟁자료들을 수집하여 인민들에게 소개선전하였으며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반일지하운동도 벌리였다.

이로 하여 그는 일제에게 여러번 체포투옥되였으며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하기까지 하였다.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그가 벌린 모든 합법적투쟁과 완강한 노력은 민족을 위한 끊임없는 암중모색과 파란곡절로 엮어졌다.

해방후에야 비로소 그는 그렇게 갈망하여오던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옳은 지침을 받아안게 되였다.

서울에 조직되였던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 성원들중 한사람이였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하루속히 서울로 오시여 나라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실것을 청원하는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주체34(1945)년 12월 20일 친서를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친서에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정당이나 신앙, 정치적리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굳게 단결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듬해 여름 그이를 만나뵈온 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고 받드는 길에 참된 인생의 길이 있음을 페부로 절감하고 주체37(1948)년 4월 공화국의 품에 안겨 한생을 마무리할 용단을 내리고 평양길에 올랐다.

축사 (요지)

남조선로동당 허헌

주체37(1948)년 4월에 진행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을 지지하여 연설하는 허헌과 그의 연설문내용을 실은 당시 신문자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생의 모진 세파를 겪으면서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진정으로 우려하고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지조를 가슴깊이 간직해온 그에게 당과 국가의 중책을 맡겨주시였다.

주체37(1948)년 그는 남북총선거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으며 9월 공화국이 창건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되였다. 이밖에도 그는 법제위원회 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위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의 중임을 맡고 새 조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민족의 발전과 후대교육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였다.

허헌의 애국적헌신과 노력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0(1951)년 6월초 그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허헌의 60번째 생일상을 차려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허헌선생의 생일이 음력으로 6월 11일이고 양력으로는 7월이라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7월이면 아직 한달 남짓한데 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전쟁환경에서 잘못하면 그가 생일을 쇠지 못할것이니 관례를 깨고라도 6월 11일에 지금까지 미루어온 60번째 생일연을 차려주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전쟁이라고 해서 한평생 투쟁과 고생속에서 살아온 선생의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한다면 한 대오에서 싸워나가는 혁명가로서의 의리가 아니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어려운 전시속에서 미루려던 그의 60번째 생일연이 마련되게 되였다.

늘 눈물은 약자의 표현이라고, 대장부는 눈물을 모른다고 말해온 허헌은 이날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딸에게 예로부터 의리는 산과 같이 무겁고 목숨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하였는데 우리 한목숨 바쳐서라도 장군님을 더 잘 모시자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사랑에 남은 여생이나마 보답해보려고 결심한 허헌이였기에 그는 있는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그러던 그는 주체40(1951)년 8월 16일 **김일성**종합대학 새학년도 개학식에 참가하기 위해 정주로 가던중 장마로 범람하는 강물에 배가 뒤집혀 8월 17일 운명하였다.

허헌선생이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너무도 통분하시여 그의 시신을 꼭 찾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침략자들의 모험적인 《하기공세》가 시작되여 매우 긴장한 때였으나 인민군전투원 수천명이 동원되여 전투를 벌린 결과 사망한지 16일만에 정주앞바다에서 끝내 그의 시신을 찾게 되였다.

허헌선생의 유해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다.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허헌선생이 우리의 곁을 너무도 빨리 떠났는데 우리와 늘 가까이 있도록 그의 묘를 평양에 써주어야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령구를 평양으로 호송하여 모란봉지하극장에 안치하게 하시였다.

전선의 정황은 시시각각 변하고있었지만 그이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전사의 마지막길을 바래워주시였다.

손수 앞장에서 령구를 메시고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를 우러러 유가족들과 조객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허헌이 공화국의 품에 안겨 산 날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가장 복되고 참된 삶을 누렸으며 오늘은 후대들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통일애국렬사로 삶을 빛내이고있다.

하기에 허헌의 딸 허정숙은 후에 자기의 회상록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썼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국가사업경험이 없는 아버지에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고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부친의 존재, 이것은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79(1990)년 8월 15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허헌은 조국통일상을 받았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일제가 조선의 청장년들을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기 위해 발급한 징병림시소집령장(왼쪽)과 해군지원병모집선전화(오른쪽)

청년학생들을 학도병으로 강제징집하고있는 일제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조국인민의 가슴속에 아물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놓았다. 그가운데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징병, 강제징용 등으로 끌어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든 죄악도 있다.

1930년대후반기에 들어와 령토팽창에 환장이 된 일제는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병력의 부단한 소모를 가져왔으며 일본의 인적자원은 고갈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바빠난 일제는 전선에서 소모되는 병력을 조선에서 강제징병의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관권과 군권이 총발동되여 수많은 청장년들을 일제의 침략전쟁터에 강제로 끌어가는 가혹한 징병제가 실시되였다.

일제는 《징병준비위원회》를 조작하고 징병제강행을 담당할 경찰 및 행정기구를 정비하였으며 《호적조사》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강제징병제실행의 첫 단계로서 징병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는 《호적조사》를 통해 조선땅에서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간 청장년들까지 모조리 장악하였다.

일제는 징병제실시를 위해 《교련》의 간판밑에 조선의 청장년들에게 강제적으로 군사훈련을 주었다. 먼저 중등학교들에서부터 군사교육을 시작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고등교육단위들에도 적용하였다.

일제는 극심한 학비난으로 학교에 갈수 없었던 청소년들까지 침략전쟁에 내몰기 위해 《청년특별련성소》라는것을 설치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군사훈련을 주었다.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도 사회교육시책인듯이 묘사하면서 청소년들을 빠짐없이 끌어들이였다. 이와 함께 소학교, 보통학교를 나온 청년들을 침략전쟁에 리용할 목적으로 《청년훈련소》를 설치하였다.

일제의 강제적인 군사교육정책으로 하여 청장년들은 물론 나어린 학생들까지 일제침략군 장교의 지휘밑에 총을 메고 진행하는 분렬행진, 사격훈련, 기마전훈련과 각종 군사기재를 다루는 훈련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이렇게 예비훈련을 준 다음 《지원병》, 《학도병》 등의 명목으로 전쟁터에 끌어가 저들의 총알받이로 리용하였다.

1943년 10월부터 11월사이에만도 무려 25만 4 700여명에 달하는 국내외의 조선청장년들이 《징병적령자》로 되여 강제로 끌려갔다.

일제는 징병으로 끌어간 조선사람들을 인간으

특공대로 징발되는 소년들

징병소집장을 돌아치는 일제의 우두머리

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을 전쟁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여기였다.

일제는 조선인병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총을 주면 반란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두 부류로 갈랐다. 즉 총을 주는 병사와 주지 않는 병사로 구분하였다. 총이 없는 조선인병사들은 가장 힘든 노예로동부대에 배치하고 총을 쥔 병사들은 전쟁터의 제1선에 내세웠다.

전장에 내몰린 조선인병사들은 형언할수 없는 민족적차별과 학대를 받았다. 일제침략군 《북지파견군 공병 4278부대》소속 훈련소에 끌려갔던 리문병은 《장교는 말할것도 없고 사병들모두가 일본말을 잘 모르는 조선청년들이 저들의 구령을 제때에 따르지 못하면 <센징>이라고 모독하면서 발길로 걷어차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조선사람만 따로 모여놓고 <기합>을 들이대군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일제침략군은 전장에서 조선인병사들을 맨 앞장에 세우고 저들은 그뒤에서 그들을 감시하였으며 《돌격》할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현상이 있을 때에는 가차없이 죽이였다.

이렇게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이 일제의 강제징병에 의하여 죽음의 전쟁터에 끌려가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였다.

패망후 일본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본륙해군에 징발되였던 조선청년 36만 4 000여명중 12만 2 000명이 죽었다.

조국인민은 지난 세기전반기 일제가 조선의 청장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아 죽음을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승기

수많은 조선의 소년들과 청장년들이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과거 일제는 중일전쟁도발후에만도 징용, 징병의 명목으로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전쟁대포밥으로 내몰거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조선청년들은 일제의 침략전쟁터에 대포밥으로 강제련행되였다.

부 여

고조선의 력사는 전조선과 후조선, 만조선으로 구분한다. 부여는 전조선이 후조선으로 교체되던 B.C. 15세기중엽에 분립한 우리 나라 고대 국가들중의 하나이다.

부여가 세워졌던 송화강류역에서는 이미 신석기시대이래로 조선옛류형사람들이, 전조선성립후에는 박달족과 같은 갈래의 사람들이 살고있었는데 B.C. 3000년기중엽에 이르러 전조선의 후국으로 편입되였다가 B.C. 15세기중엽에 독자적인 고대국가로 성립되였다.

부여의 수도는 옛 기록에 의하면 오늘의 중국 길림성 길림시일대였으며 령역은 송화강류역을 중심으로 하여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었다. 부여의 왕은 전국의 토지와 인민에 대한 지배권을 틀어쥔 국가의 최고권력자였으며 그 지위는 기본적으로 세습되였다. 부여존립기간 수십대의 왕대가 있었으나 기록에 남아 전해지는것은 부여말기의 해부루, 금와, 대소 등이다.

부여는 전조선의 후국으로 있었던 나라였던것만큼 상이나 6가, 제가평의회 등 중앙관료체계를 비롯한 정치제도도 전조선의것을 많이 본땄다.

상은 왕밑의 최고관료, 관료의 수반으로서 국가사업전반을 총괄하고 국왕의 통치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전조선의 호가와 같은 벼슬이였다. 부여의 중앙관직에는 전조선의 8가제도에서 유래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6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앙의 제일 높은 급의 관리들로서 대체로 왕족출신귀족들이 오를수 있었다.

그밑에 중앙관직으로서 대사, 대사자, 사자 등이 있었다.

부여에는 전조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치문제들 즉 형벌, 왕위계승문제, 정책수립, 법률제정, 전쟁과 대외관계 등 여러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는 귀족민주주의평의기구인 제가평의회가 있었다.

이 제가평의회에는 통치계급의 상층인 대가들과 함께 지방의 읍락들을 다스리는 가들도 참가하였다.

부여에서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사냥을 자주 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겨하며 일상적으로 체력을 단련하였다.

그런데로부터 부여의 군대는 전투력이 매우 강하였다. 거기에 비교적 정연한 군사지휘체계와 병역제도를 가지고있었다.

군대의 최고지휘권은 왕에게 있었고 국왕밑에 여러 가들이 거느린 전투부대가 있었는데 그 기본전투성원은 대체로 민간인으로 꾸려져있었다.

이들은 집집마다에 병쟁기를 갖추고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자체로 무장을 하고 전투대오에 편입되여 싸웠다.

고조선의 《범금 8조》와 마찬가지로 부여에도 사람을 죽인자는 죽이고 그 가족을 노비로 만들며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훔친 물건의 12배에 달하는 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이 있었다.

가장 중한 범죄자들은 부여의 국중대회인 영고를 계기로 여러 가들의 합의에 따라 처형되였다.

부여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인 로력에 의해 일찍부터 경제의 여러 부문이 발전하였다.

부여의 중심지대인 송화강류역은 넓은 벌방지대이고 땅이 기름진것으로 하여 농사가 잘되였다.

부여는 언덕과 초원, 넓은 늪이 많은 유리한 지대들을 리용하여 목축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이웃나라들에 집짐승을 잘 기르는 나라, 이름난 말이 나는 나라로 널리 알려지였다. 뿐만아니라 부여는 고운 옥돌과 여러가지 구슬을 많이 생산하여 황금의 산지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일찍부터 천문기상관측사업을 진행하여 력서를 만들어 리용한 부여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즐기고 흰옷을 좋아하였고 례절이 밝았다.

당시의 발전된 정치제도와 인민들의 근면한 로력에 의한 생산력의 증대로 하여 부여는 천수백년동안 사회정치적안정을 유지하며 존재하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권승안

야 화

록족부인과 그의 아들들

먼 옛날 평양에는 발이 사슴발과 같이 생겨 《록족부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녀인이 살고있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도 어머니를 닮아 발이 사슴발과 같았으므로 동네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군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동네아이들과 함께 놀지 말고 집뜰안에서 무술놀이나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들들은 하루같이 집뜰안에만 박혀있을수 없어 이따금 밖에 나가 놀군 했다.

그러던 어느날 두 아들이 자기들의 발을 두고 놀려대는 지주집아이를 혼내준다고 한번 친것이 그만 죽여버렸다.

이것을 안 록족부인은 아들을 잃은 지주가 가만있지 않으리라는것을 타산하고 그날밤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멀리 피신하기 위해 바다가로 나왔다.

록족부인과 아들들은 곧 쪽배에 올라 정처없이 떠났다. 너무 급히 서둘러 떠나다나니 길량식을 준비해가지고 떠나지 못하였다. 록족부인은 길량식을 구하기 위해 어느한 포구에 쪽배를 매여놓고 두 아들더러 배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마을에 찾아들어갔다.

록족부인이 량식을 구해가지고 포구로 급히 나오니 매여놓았던 쪽배와 두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쪽배는 그사이 태풍에 밀려갔던것이다.

아들들을 잃어버린 록족부인은 그후 대성산에 들어가 사슴을 기르는것을 락으로 삼고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어느덧 부인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외래침략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입해왔다. 나라에서는 침략군을 막아낼 과업을 을지문덕장군에게 맡기였다.

이 소식을 들은 록족부인은 을지문덕장군을 찾아가 자기는 녀인의 몸이지만 외적이 쳐들어오는 이때에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고 하면서 군사들을 도와 일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록족부인은 그가 인솔하는 부대에 남게 되였다.

쌍방이 진을 치고 맞서고있을 때였다. 을지문덕장군은 적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독으로 적진에 들어가게 되였다.

록족부인은 홀로 적진에 들어가는 을지문덕장군의 신상이 념려되여 남몰래 그뒤를 따라섰다.

을지문덕장군이 적진에 들어가자 적장은 그를 억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을지문덕장군의 태연자약하고 호방하며 름름한 위풍에 위압을 당한데다 사리정연한 론리앞에서 그를 감히 억류해놓을수 없었다. 적장은 그를 떠나보내고나서야 후회하며 많은 군사를 풀어 추격하게 하였다.

이런 위기일발의 순간 강가에 배를 대고있던 록족부인에 의하여 을지문덕장군은 구원되였다.

그때 적들속에는 싸움을 잘하기로 이름난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록족장군들이였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란 록족부인은 늙은 로파로 가장하고 곧 적진에 들어가 두 록족장군을 만났다. 아무말없이 먼저 버선을 벗어보인 록족부인은 두 록족장군들에게도 발을 보여줄것을 청하였다. 그들도 버선을 벗었는데 두 록족장군의 발도 사슴발이였다.

그제야 그들은 록족부인이 자기들의 어머니라는것을 알고 와락 안기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헤여진 후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하고난 부인은 아들들을 준절히 타일렀다.

《너희들이 내 아들들일진대 곧 고구려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런데 제 어머니에게 창을 겨누고 제 나라 백성들에게 칼부림을 할테냐?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으며 그런 역적이 또 어디 있겠느냐!》

어머니가 돌아간 뒤 두 아들은 어머니와 자기가 태여난 조국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수치에 가슴을 치며 모대기다가 새벽녘에 어머니를 찾아 고구려진중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어머니와 을지문덕장군을 만나 자기 조국을 배반할번 한 잘못을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고 그 죄를 씻을수 있도록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록족부인의 아들들인 록족장군들은 침략군을 고구려령토밖으로 내쫓고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　　*　　*

선조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회화작품들에는 그들의 아름다운 지향과 요구,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다.

그들의 창조물들은 지금도 조선민족의 회화사의 한페지를 뚜렷이 장식하고있다.

회화작품들에는 인류력사의 려명기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온 조선민족의 력사가 수놓아져있다.

이번호부터 조선력사에 이름을 남긴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한다.

법륭사의 금당벽화와 담징

610년, 아직도 찬바람이 부는 바다가의 어느한 포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떠나는 사람, 바래우는 사람으로 흥성이는속에 가사를 단정히 입은 젊은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배에 올랐다.

파도를 헤가르며 동쪽으로 미끄러져가는 배전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옷자락을 날리며 멀어져가는 조국땅을 바라보는 홍안의 젊은이가 바로 고구려의 화가이며 중인 담징이였다.

동방의 강대국인 고구려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던 주변의 외적들은 589년 100만의 대군으로 고구려에 덤벼들었다가 된타격을 받고 쫓겨났으나 여전히 교훈을 찾지 못하고 더 큰 침략을 준비하고있었다.

이것을 잘 알고있던 그였기에 적과의 싸움에 자기 한몸 바치지 못하고 기약할수 없는 이 길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굽에는 물기가 어렸다.

그러나 아니 갈수 없는 길이였다.

조정에서는 이미 일본의 초청을 수락하였고 자신은 임금의 어명을 받은 몸이니 달리할수 없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세나라의 영향으로 아스까문화가 고조기에 이르고있었다.

아스까문화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세나라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발전된 문화를 전파시키면서 창조된것이였다. 여기에서 특히 고구려의 영향은 대단히 컸다.

원래 아스까란 어원은 조선어의 안숙(편안한 보금자리)이라는 말에서 나온것인데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일본땅에 진출한 조선사람들이 정착한 지대이름을 의미한다.

579년에 고구려에서 태여난 담징은 어려서부터 여러 학문뿐 아니라 남달리 그림에 취미를 가지고 무엇을 하나 보아도 그저 스치지 않고 다시한번 재현해보고야마는 이악한 성품을 지니고있었다. 그는 30살에 불교경전에 정통하였을뿐 아니라 유교교리도 꿰뚫었고 회화분야에도 조예가 깊어 고구려에서 인재로 그 이름이 높았다.

담징일행이 일본에 도착하자 야마또국가에서는 그들을 국빈으로 맞이하였다.

담징일행을 맞이한 성덕태자는 이미 3년전에 완공된 법륭사가 당신들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절건물에 벽화를 그려줄것을 부탁하였다.

일본의 옛 문헌에 의하면 법륭사는 일본의 집권자였던 성덕태자가 고구려승려 혜자를 스승으로 삼아 불경을 열심히 배워 불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지은 절인데 607년에야 완공되였다. 이렇게 건설된 절에 단청을 하지 않으니 절로서의 품위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런데 벽화를 그리자고 해도 당시 일본에서는 그것을 그려본 화가가 없었다. 그리하여 성덕태자는 고구려의 화가를 초청하게 되였고 고구려왕은 담징을 보내주었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담징은 바다를 건너가 이 절의 단청과 벽화들을 맡아 그리게 되였으며 그것이 바로 후세에 전해진 아스까시대미술의 대표작으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금당벽화이다.

금당벽화의 그림도 신비롭지만 이 그림에 깃든 담징의 높은 애국심이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더더욱 명화로 빛을 뿌리고있다.

담징은 법륭사에 가서 벽화를 그릴 준비를 끝마친 후에도 인차 그림을 그리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기여 시간만 보내고있었다. 대상만 말으면 언제나 단숨에 붓을 휘둘러 사람들을 놀래우군 하던 그였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속에서는 의문만 더해갔다.

그러나 그가 오래동안 붓을 들지 못한것은 뒤에 두고온 사랑하는 조국땅 고구려에 대병력으로 침략자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기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고구려의 참된 아들이였던 그의 생각은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을 바다건너 조국에로 끝없이 달리고있었다.

고구려의 운명에 대한 근심이 그의 머리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조색판을 들어도 조색이 되지 않았고 붓을 들어도 손끝에 힘이 가지 않았다.

담징이 번민으로 속을 태우면서 여러날을 보내고있을 때 그의 속내를 알지 못하는 법륭사의 승려들속에서 비난의 뒤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승려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담징은 붓을 들려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에게 주지가 달려와 고구려에 침입해왔던 외적의 300만대군이 대부분 전멸되였다고 전해주었다.

생기를 잃고 누워있던 담징은 벌떡 일어나 기쁨을 금치 못해하더니 다음날 깊은 산중에 들어가 맑은 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몸차림을 단정히 한 다음 절에 내려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이 외적을 쳐물리쳤다는 환희와 긍지에 가슴이 부풀고 온몸에 열정이 솟구쳐 붓을 쥔 그의 손은 학과 봉황이 춤을 추듯, 청룡과 백호가 구름을 헤가르며 하늘을 달리듯이 움직이였다.

그리하여 금당의 12개 벽면과 천정밑의 20개 작은 벽에는 황홀하고 기백있는 그림들이 그려졌다.

금당벽에 그림이 그려졌다는 소식은 삽시에 퍼져 수많은 사람들과 중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벽화를 보고 너무도 황홀하여 《아니, 저것이 사람이 그린것이 맞소?》 하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 말에 담징은 《이 벽화가 잘된것은 나의 그림솜씨가 신비로와서가 아니라 그림에 고구려의 얼이 깃들어있기때문이오. 그 어떤 대적도 굽힐수 없는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용감하고 강의한 고구려사람들의 얼이 있어 이 벽화가 이렇게 완성될수 있었소.》라고 대답하였다.

이 이야기는 담징이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얼마나 뜨겁고 높았는가를 그대로 말해준다.

법륭사금당벽화의 한 부분

법륭사금당벽화는 4개의 큰 벽면과 8개의 작은 벽면에 그려진 벽화만이 남아있다.

12폭의 벽화가운데서 아미타정토상과 협시관음보살상은 가장 우수한 작품들이다.

그림은 능란한 필치와 아름다운 색조화로 하여 매우 화려한감을 준다. 뿐만아니라 그림은 구도가 째이고 매개 인물들의 얼굴세부표정까지도 섬세하게 묘사되여있다. 그 형상수법이 독특하고 세련되였으며 색채가 선명하고 인물들의 형상이 생동한것으로 하여 그림은 세계중세회화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고구려화가 담징의 이름이 벽화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있다.

일본에서 국보로 전해져온 법륭사금당벽화는 아쉽게도 주체38(1949)년 화재로 건물과 함께 불타 없어지고말았다.

그러나 이 벽화는 경주의 석굴암, 중국의 운강석굴과 함께 동양의 3대미술작품으로 알려져있다.

그후 일본에서는 금당벽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목소리가 높아지자 1968년에 금당을 다시 짓고 벽화원본을 찍은 사진에 기초하여 벽화를 복원해놓았으나 담징이 그린 원화에는 도저히 견줄수 없었다.

담징이야말로 고구려벽화미술의 우수성을 남김없이 파시한 재능있는 화가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새로운 력사유물들을 발굴고증

- 민족유산보호국 국장 룡주와 본사기자와의 문답 -

기자: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산들인 금강산과 묘향산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물들이 새로 발굴된 소식이 전해지고있습니다.

새로 발굴된 력사유물들은 어떤것들입니까?

국장: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발굴된 력사유물들은 모두 크지 않은 불상들입니다.

우리 나라에 불교가 전파되던 시기인 4세기후반기부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간을 찾아가 부처에게 자기가 바라는 일이 잘되기를 빌었는데 오가는 품을 덜고 편리한 장소와 임의의 시간에 불상앞에서 례배를 하기 위하여 소형불상들을 만들어 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묘향산에서 발굴된 약사여래3존불상

금강산에서 발굴된 금동아미타여래3존불상

그런 용도에서 만들어진 불상들이 이번에 발굴되였습니다.

기자: 유물들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국장: 묘향산 천태봉정점에서 발굴된 불상은 약사여래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놓인 일광보살상과 월광보살상으로 이루어진 약사여래3존불상입니다.

약사여래3존불상의 특징은 주성분이 은이고 겉면에 금도금을 입힌것입니다.

약사여래상의 높이와 무게는 8.9㎝, 200g이고 일광보살상의 높이와 무게는 7.9㎝, 140g이며 월광보살상의 높이와 무게는 7.8㎝, 170g입니다.

약사여래3존불상에서 약사여래상은 올방자를 틀고앉아 왼손에 약단지를 들고있는 자세를 취하고있으며 협시보살상들인 일광보살상과 월광보살상은 손가짐새에서는 조금 차이나지만 약사여래상과 같이 올방자를 튼 좌상형식으로 되여있습니다.

금강산에서 나온 금동아미타여래3존불상은 주불인 아미타여래상을 중심으로 좌우의 협시보살상들인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상들은 청동겉면에 금도금을 한 금동불상으로서 그 재질은 현대의 전기동과 현저히 다른것으로 평가되였습니다.

아미타여래상의 높이와 무게는 16㎝, 900g이고 관음보살상의 높이와 무게는 14㎝, 580g이며 지장보살상의 높이와 무게는 13.4㎝, 530g입니다.

여기에서 아미타여래상의 잔등에는 《광암사》라는 글이 한자로 새겨져있는데 광암사는 개성시 해선리의 고려 제31대 왕인 경효왕의 무덤앞에 있던 절로서 처음에는 광암사 또는 운암사로 불리우다가 경효왕릉이 건설되던 1374년경에 개건확장된 후 광통보제선사로 고쳐지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불상잔등에 새겨진 《광암사》라는 절이름은 이 불상이 1374년이전에 만들어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새로 발굴된 불상들의 재질은 전문연구단위에서 주사전자현미경분석법으로 확증하였습니다.

기자: 력사유물들이 가지는 학술적의의는 무엇입니까?

국장: 고고학학회에서는 새로 발굴된 불상들이 고려시기의 유물로서 불상의 형상수법과 제조년대 및 방법 등을 연구하는데서 학술적의의가 크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선의 명산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나온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유물들가운데서도 손꼽힐 정도로 국보적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불상들이 가지는 학술적의의는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조각예술적재능과 금속주조기술을 뚜렷이 엿볼수 있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실례로 금강산 아미타여래3존불상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중심여래상과 좌우의 협시보살상들은 실지 살아숨쉬는 산 인간을 보듯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진것으로서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도 우리 선조들의 발전된 금속주조기술을 말없이 전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부터 발해, 후기신라에로 이어지면서 보급되여오던 불상제작방법이 고려시기에도 그대로 전해졌다는것을 립증할수 있는 물질적근거로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 중세조각사연구를 보다 심화시킬수 있는 자료적토대가 더욱 풍부해졌다는데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기자: 새로 발굴된 력사유물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금속주조기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의 향기

련면히 이어지는 금속공예

금속공예의 력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유물들의 일부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해외에서 조국을 그리며 계실 여러분을 위해 우리는 유구한 조선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거슬러보게 하는 《민족의 향기》의 또 한페지를 펼치게 됩니다.

이번호에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온 금속공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싶이 아득한 원시사회의 석기시대에 이어 청동기시대가 도래한 때로부터 금속제품의 출현은 인간생활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철, 동, 금과 은을 비롯한 여러가지 금속들을 가지고 로동도구와 무기, 치레거리와 종, 활자를 비롯한 많은 금속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조들의 이러한 금속공예기술은 태고적부터 발생발전하여왔습니다.

고조선 이전시기인 원시사회때부터 조상들은 청동으로 로동도구와 무기, 치레거리 등을 만들어 사용하여 대동강류역에서 일찌기 청동기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대동강류역에서의 청동기시대는 B.C. 4000년기후반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무른 구리대신에 90%의 동에 주석 10%를 섞어 구리보다 훨씬 굳은 청동을 얻어내는 독특한 야금법을 창조하였습니다. 주체83(1994)년에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나온 여러개의 청동조각들을 통해 선조들이 그것으로 로동도구와 치레거리, 생활도구들을 만들어 생활에 리용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고조선(B.C. 30세기초－B.C. 108년)시기의 금속가공기술과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써는 비파형단검(청동단검)을 꼽을수 있습니다.

악기의 일종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하여 비파형단검으로 불리우는 단검은 조선반도와 료하, 송화강류역에서 나온것인데 조형예술적으로 완전무결한 독특한 유물로서 고조선주민들의 높은 금속가공기술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미학적견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주체98(2009)년에 남포시 룡강군 후산리나무곽무덤(고조선시기)에서 발굴한 쇠단검과 쇠창, 쇠도끼 등의 무기류와 로동도구류, 주체83(1994)년 강원도 철령에서 발굴한 고구려(B.C. 277년－A.D. 668년)시기의 기마모형은 당시의 철주조기술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밖에도 고려시기의 청동거울, 금속활자,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몸치레거리 등은 우리나라의 유구하고 풍부한 금속공예전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특히 남들보다 300여년이나 앞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인쇄에 리용하였습니다.

평양의 대동문루안에 달려있는 평양종(1726년)은 높이 3.1m, 아구리직경 1.6m에 무게가 12t 914kg으로서 겉면에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종의 래력을 쓴 글 등이 도드라지게 새겨져있고 종의 머리부위에는 청룡과 황룡의 조각이 기운차고 섬세하게 부각되여 선조들의 재능을 엿볼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조선민족은 금속공예기술 하나를 통해서도 자기의 독특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온 슬기롭고 재능있는 민족입니다.

삼국시기와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시기를 걸치는 과정에 금속공예는 그 수법과 형태, 가지수가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잔, 수저, 접시, 주전자, 그릇, 쟁반과 같은 그릇류들과 노리개와 같은 치레거리들, 가락지, 칼, 초대, 합 등 금과 은으로 만든 귀금속공예품들에도 조선민족의 지혜와 재능, 미감이 반영되여있습니다.

오늘날 조국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대대로 전해오는 은반지를 끼워주고 자식을 낳으면 은장도와 은노리개를 채워주던 옛 풍습대로 세쌍둥이가 태여나면 그들에게 은장도와 금반지를 안겨주고있습니다.

몇해전 조국에서는 금속공예(은세공술)술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습니다.

금속공예술은 가정들에 의해서도 계승되고있습니다.

황해북도 황주군 읍에 살고있는 문찬섭은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금속공예에 대한 기법을 정리하여 은세공술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어릴적부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금속공예술로 여러가지 생활용품들과 장식용품들을 만드는것을 즐겨 보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금속공예품의 도안착상과 부각, 투각과 같은 공예기법들, 열처리와 납땜수법 등 금속공예의 기초로 되는 세공수법들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주었습니다. …》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남다른 관심속에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 많은 세공수법들을 터득하였으며 《통일컵》, 《참매》, 《대결》과 같이 국보적가치를 가

지는 은공예품들을 창작하게 되였습니다.

지금 그는 20대에 이른 아들과 함께 조선민족의 우수한 전통수법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늘 사색하며 작품창작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으며 그 형상구조와 장식수법, 기교를 독특하게 반영하고있는 금속공예품들은 만수대창작사와 대성보석가공공장 등에서도 많이 창작되고있습니다.

생활과 자연을 조형예술적으로 형상한 금속공예품은 비록 크지 않아도 여기에는 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비껴있으며 사람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전선일

백두산 (3)

- 백두산지구의 동식물 -

백두산지구는 아시아대륙과 륙지로 련속된 고산지대로서 엄혹한 기후와 고유한 지질 및 지리적자연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동식물상을 펼쳐보이고 있다.

이 지구의 동물로서는 고산지대의 환경에 적응한 새류와 짐승류가 우세하고 파충류와 량서류는 매우 적다. 그런가 하면 물고기류는 비교적 많지만 원구류는 극히 적은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백두산지구의 지사학적과정과 생태적환경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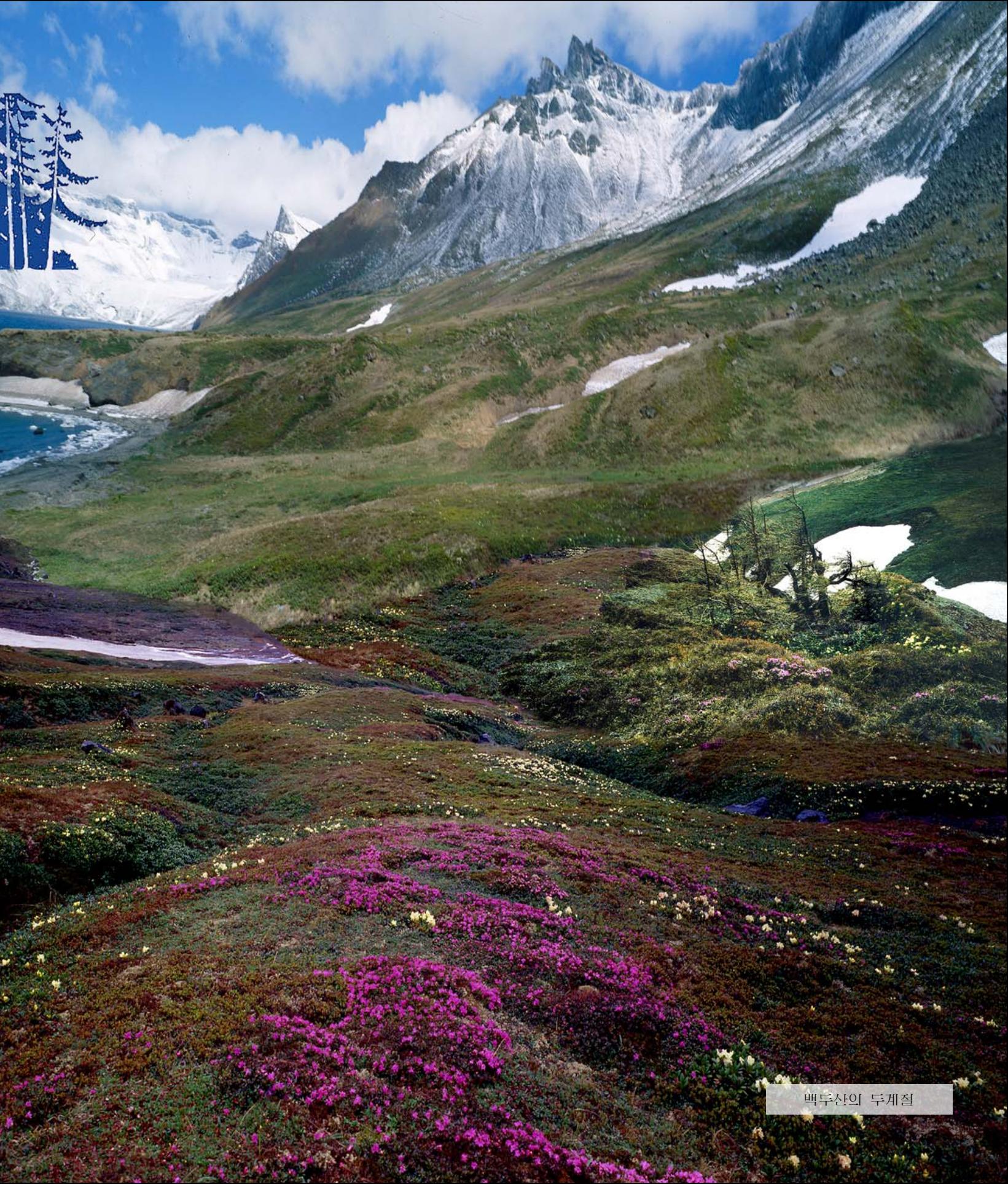
이 지구에는 마리수가 적고 희귀하면서도 특별히 보호할 리로운 동물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짐승들은 검은돈, 수달, 사향노루, 큰곰 등이다.

이 지구는 겨울철기온이 매우 낮고 먹이조건이 불리한것으로 하여 사철새와 겨울새가 매우 적고 여름철에는 살이터환경이 다양하고 유리해지는것으로 하여 여름새들이 많이 찾아와 번식한다. 또한 백두산지구는 광활한 백두용암대지를 포괄하여 새류의 활동성과 계절적이동성이 큰것으로 하여 새류상의 지역적차이를 나타내고있다.

산림이 울창한 대밀림지대인 백두산지구에는 산림해충을 먹고 사는 새류를 비롯하여 쥐를 잡아먹는 새류, 자연풍치를 돋구는 새류 등 리로운 새들이 많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새류인 삼지연메닭, 대홍단메닭 등과 백두산지구 특별보호대상 새류인 메닭, 세가락메추리, 북올빼미 등이 많이 서식하고있다.

백두산지구에 분포된 파충류는 산림성파충류가 기본을 이루며 고산성파충류는 매우 빈약하다. 량서류상도 오직 북방형계통으로 구성되였으며 산림성량서류가 기본이고 고산성량서류는 빈약하다.

백두산지구의 물고기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최상류수역에 분포서식하고 있다. 원래 백두산천지에는 몇종의 식물성떠살이생물들과 수서곤충들이 살고있었을뿐 물고기는 없었다.

주체49(1960)년 7월 처음으로 삼지연의 붕어와 두만강의 산천어를 백두산천지에 옮기는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그후 여러 차례 붕어, 산천어, 참붕어, 버들치, 종개 등을 이식방류하였다.

현재 천지에는 천지산천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자라고 있다.

백두산지구의 무척추동물상은 여러 차례의 화산분출과 산악빙하 등과 같은 자연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 종구성과 분포모습이 부단히 변화되였다.

백두산지구는 다양한 식물상을 이루고있다.

겉씨식물은 종수는 적으나 백두산지구 식물상형성에서 기본으로 되고

백두산의 두계절

백두산의 가을

백두산천지 동식물의 일부

있으며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이깔나무, 좀이깔나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두산지구의 식물상에서 특이한것은 비교적 분포속도가 빠른 식물종수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이다.

백두산식물상에서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사스레나무, 두메오리나무 등 아한대성나무요소들은 산림형성의 기본수종으로 되고있다.

매저지나무, 들쭉나무, 백산차 등의 아한대성 떨기나무종류들은 키큰나무들의 사이사이에서 군락을 이루고있다.

7~8월이 되면 백두산기슭에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듯 흰색, 노란색, 연분홍색, 보라색의 꽃들이 한꺼번에 피여난다. 향기를 풍기며 제일먼저 아름답게 피여나는 만병초는 백두산의 엄혹한 눈속에서도 억세게 자라는 기상을 보여주는 백두산의 꽃, 백두산의 특산식물로 널리 알려져있다.

백두산의 산림한계선인 2 000m아래에는 태고연한 대원시림이 끝없이 펼쳐져 말그대로 천고밀림의 바다를 이루고있다. 기후조건의 영향으로 백두산의 식물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수림대, 떨기나무림대, 고산초원대, 지의대 순위로 바뀌여진다. 그런데로부터 혜산을 떠나 백두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온대로부터 아한대를 거쳐 한대지방에 이르기까지의 식물들을 거의다 볼수 있다.

삼지연으로부터 신무성에 이르는 해발높이

백두산지구 동식물의 일부

백두산지구에는 주체78(1989)년 유네스코에 등록된 백두산생물권보호구와 함께 원봉호자연공원, 대흥동물보호구, 포태산동물보호구, 동계수산천어특별보호구, 대홍단철쭉보호구를 비롯한 자연보호구들이 있다.

1 600m아래에는 바늘잎나무들과 넓은잎나무들이 울창하다. 그런가 하면 신무성에서부터 무두봉에 이르는 사이에는 바늘잎나무숲이 펼쳐지며 높은 지대에 오를수록 나무의 키는 작아진다. 무두봉일대는 한대성수림과 고산초원대의 점의지역으로서 식물구성이 대단히 다양하고 풍부하다. 무두봉-신무성지구는 해발높이가 1 600~1 900m나 되는 지대로서 식물의 수직대가 특이하게 나타난다. 이 지대에 분포되여있는 산림에는 아한대성바늘잎나무들인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종비나무, 좀이깔나무들이 자란다. 이러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이곳 산림을 백두산원시림이라고 한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고화

하늘소 끄는 아이

고화《하늘소 끄는 아이》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화가였던 김제(1524년-1593년)가 그린 인물화이다.

김제는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 령모화를 잘 그렸는데 타고난 그림재주로 하여 과거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별제벼슬을 지낸 화가였다. 그는 생활속에 흔히 있는 하나의 작은 계기를 포착하여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해내는 예리한 관찰력과 높은 기량을 소유하고있었다.

그의 대표작인 《하늘소 끄는 아이》도 그러한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깎아세운듯한 바위가 치솟아있고 가까이에는 소나무가 있다. 옆으로 퍼진 나무가지가 우아래로 뻗치는 바위와 나무의 무게를 좌우로 흩어뜨리여 화면에 안정감을 지어주고있다.

자그마한 개울을 사이에 두고 한켠에서 고삐를 쥔 아이가 하늘소를 끄는데 다른켠에 선 하늘소는 가느다란 통나무를 건네놓은 외나무다리를 건느기가 두려운지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기가 멋적어선지 네발을 딱 버티고서있다. 안깐힘을 쓰면서 고삐를 당기는 귀엽성스러운 소년과 갈기까지 곧추 일구고 귀를 쭝긋 세운 하늘소의 버티고선 모습은 심하게 대조되여있으면서도 긴장감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온화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동화세계를 들여다보는듯 웃음까지 자아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금시 고삐가 끊어지지 않을가 우려의 마음까지 가지게 하는, 시정이 넘쳐나는 그림이다.

www.korean-books.com.kp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